

2026
No.126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회장 이동섭 (경영89)

E1이 펼치고 모두가 누리는 E10 | GREEN 미래

친환경 LPG부터 수소, 전기, 태양광, 풍력까지
E1이 환경과 에너지가 친구되는 세상을 펼쳐갑니다



친환경에너지 복합스테이션
티 오렌지플러스 런칭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6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	행사명	장소
3월 24일(화)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파크루안(역삼)
4월 25일(토) 10:00	힐링트레킹	개운산
5월 13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미정
5월 30일(토) 11:00	상반기 골프대회	몽베르CC
미정	정기고연전	
미정	고연전 뒤풀이 축제	미정
미정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미정
10월 30일(금) 11:00	골프고연전	페럼CC
12월 3일(목) 18:30	제44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교우의 밤
- 14_ 상반기 상임이사회
- 15_ 교우 인터뷰
- 20_ 교우 기부
- 21_ 추모의 글
- 22_ 교우 동정
- 24_ 교우 기고
- 36_ 학년별 소식
- 57_ 경영대 소식 I
- 60_ 학위 수여식
- 62_ 경영대 소식 II
- 63_ 신간 소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6 통권 제126호 Vol.48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양정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310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제43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

제43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이 2025년 12월 4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김연수 경영대학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 김미숙 사범대 교우회장, 원로교수, 현직교수를 비롯해 55학번부터 20학번까지 450여명이 참석해 모교와 경영대학의 120주년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경영대 교우회의 활동상을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 도약을 다짐했다.

개회선언에 앞서 크로스오버 성악 트리오 첼레스테의 오프닝 공연인 '오 솔레미오', '축배의 노래'로 힘차게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사회를 맡은 안종욱(경영89) 교우와 정이나(가교08) 교우의 개회선언과 함께 공식행사가 시작됐다.

98학번동기회 대표들이 태극기, 교우회기, 경영대기를 들고 입장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98학번 교우들의 결집을 이끌었던 여교우(한경선·경영98)가 가수단에 합류하여 주목을 받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지난 가을에 타계한 최상영(경영69) 일본교우회장과 구자형(경영74) 전 수석부회장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김연수 경영대학장



김동원 총장의 영상 축사



43rd 고려대학교 교우의 밤



이동섭 경영대학 교우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12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1905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의 최고사학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교수님들의 모습과 교우회를 중심으로 뭉쳐진 교우들 간의 강한 결속은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큰 힘이 되어왔다. 또한 한 해 동안 경영대 교우회는 다양한 행사에서 많은 선후배님들이 참석해 주신 덕분에 교우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경영대 교우회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먼저 모교 발전과 와세다 대학과의 교류에 크게 기여한 최상영 교우를 추모했다. 승명호 교우회장은 “경영대 교우의 밤은 지난 43년 동안 경영대학의 역사를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자 축제의 장이다. 오늘 제43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맞아 경영대 교우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또 승명호 회장은 “우리는 빠르

게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고대 경영이라는 이름아래 쌓아온 우리의 지혜와 연대가 소중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해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43회 경영대 교우의 밤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김언수(경영81) 경영대학장은 신입교수 7명과 이날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 11명을 소개했다. 이어진 학사보고에서는 경영대학의 성장과 지난 120년 동안의 성취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학장단이 취임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한 3C4Tech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김언수 학장은 KUBS 120 MARCH 캠페인 소개했다. 그동안 많은 교우들의 애정 어린 헌신으로 오늘날 경영대학의 위상 유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재 모교 상황을 공유하고 동참해 줄 것을 역설했다.

98학번 장학금 기부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반				
김교민	김기연	김낙은	김동원	김승헌
노승민	박영근	안종민	오수려	우희진
이수범	이승호	이준혁	장용석	조학래
최용석	최 현	(17명)		

D반				
권혁진	김 민	김영학	김흥규	나우희
남주성	박동현	서동우	석주환	손시영
오지수	오혜윤	윤아람	이광섭	이민섭
이진형	장용수	정혜선	정희영	최지윤
홍준기	(21명)			

B반				
김대선	김아리	두서영	손동춘	양희철
유선주	이정연	이준식	장봉준	정현승
정형재	조종관	최승록	한동규	(14명)

E반				
강서정	김경태	김기돈	김병성	김영주
김영태	김원상	김윤환	김재우	김진욱
김형민	나중환	노현희	류 민	문태영
박성수	박소현	박진우	박찬진	배진우
백만수	서경진	서관오	신승수	심고은
안경찬	어준경	오신나	왕문경	우종욱
위현우	유완희	이상민	이성하	이순우
이원중	이재등	이정환	임순규	임완수
임지웅	장소영	장지영	전남철	전우영
정수기	정태웅	좌혜선	지정현	차무녕
채희경	최용범	최종민	최 호	한경선
허민지	홍원욱	(57명)		

C반				
강한범	고재현	김지호	박경준	박준영
배상호	송명수	신승현	양일섭	이기원
이열강	이진호	이홍석	장기영	전우석
조예진	조준상	(17명)		

총금액 79,805,231 원

고액기부자 명단										
A반	김교민	박영근	이준혁	조학래						
B반	김대선	김아리	손동춘	양희철	이준식	장봉준	정현승	조종관		
C반	박준영	송명수	신승현	양일섭	이기원	전우석	조예진			
D반	김 민	나우희	손시영	윤아람	최지윤					
E반	김경태	김기돈	김영주	김재우	나중환	박성수	박소현	백만수	서경진	
	신승수	오신나	왕문경	유완희	이원중	이재동	임순규	전남철	전우영	
	차무녕	최종민	최 호	한경선						

장학금 전달식



수상자 이용훈 대표이사



수상자 배형근 대표이사



수상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단체수상 79학번동기회

2024년 제42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당시 4,000만 원을 기탁한 97학번동기회(회장 강 민)에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98학번동기회(회장 김경태)는 79,805,231 원을 조성해 경영대에 전달했다. 79학번동기회(회장 이상현)도 '79글로벌스칼라십'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79학번은 1년에 3,5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7,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약정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전달했다.

2025년 '올해의 교우상' 기업가 부문에는 이용훈(경영84) 주식회사 인타임즈인 대표이사 사장이 글로벌 인재양성과 발달장애 선수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전문경영인 부문에는 현대차증권 배형근(경영84) 대표이사 사장이 기업 체질 개선 및 ESG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수상을, 공직자 부문에는 대미 투자협상에서 관세 인하에 기여한 최지영(경영89)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상했다.

또한 특별상은 후배를 향한 따뜻한 지원,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으로 깊은 결속력과 뜨거운 우정을 보여준 79학번동기회에게 돌아갔다.

43rd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



입학 50주년을 맞이한 75학번 교우와 이날 참석자 중 최연소 교우인 20학번 교우가 참여한 축하 케이크 커팅으로 2부 순서가 시작됐다.

90년대 농구스타 김병철(체교93) 교우와 양희승(체교93) 교우의 건배제외가 있었고 57대 학생회는 도움을 주신 교우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만찬 자리에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연세대 상경·경영 동창회에서도 7명이 참석해 고려대 교우와 함께 즐거운 축제 현장을 즐겼다.

교우의 밤 행사의 문을 연 첼레스테가 본격적인 무대를 펼쳤다. 'Phantom of the Opera', 'Think of Me', 'Nella Fantasia' 등 갈라쇼를 방불케 한 다채로운 공연들로 교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마지막 곡인 '붉은 노을'로 모두를 대학 시절의 기억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었다.

응원단이 무대에 올라 이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많은 눈으로 추워진 날씨를 녹이듯 뜨거운 응원제를 펼치며 모두를 하나로 이었다. 마지막으로, 98학번의 주도로 교호, 교가 제창하고 성대한 축제를 마무리했다.

행사찬조명단

격조 높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O	성명	학번	소속 및 직위	찬조내역
1	엄종일	61	(주)럭스산업개발 회장	생활용품 세트 20개
2	이학수	65	(주)엘앤비 인베스트먼트 회장	상품권 200만원
3	허광수	65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핑 퍼터 3개
4	김영환	66	(주)벽제외식산업개발 회장	식사권 200만원 (벽제갈비 20만원권 5매, 봉피양 20만원권 5매)
5	박성훈	66	재능그룹 회장	포켓용 수첩 500개
6	허정수	69	GS네오텍 회장	상품권 200만원
7	이재동	70	PTA에쿼티파트너스 회장 / 서현회계법인 고문	현금 100만원
8	구자열	72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 / (주)LS그룹 이사회 의장	몽벨 패딩 5벌
9	김 윤	72	(주)삼양홀딩스 회장	LG 55인치 올레드 TV 1대
10	강호갑	74	(주)신영 대표이사 회장	현금 300만원
11	승명호	74	고려대학교 교수회장 / 동화그룹 한국일보 회장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1개
12	정몽원	74	H그룹 회장	광고협찬 300만원
13	허경수	75	코스모그룹 회장	닌자 무선 블라스트 믹서기 6대, 텀블러 12개, 고급 와인 12세트(24병)
14	박현주	78	미래에셋그룹 회장	광고협찬 300만원
15	정몽진	79	(주)KCC 회장	광고협찬 500만원
16	정몽규	80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선 파크로쉬 숙박 SUITE객실(1박) 3매
17	김언수	8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고대 벽걸이 달력 700부
18	이충진	81	ALGOVITAL KOREA 대표	복순도가 120병
19	우상현	82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올림웨어 600개, 광고100만원
20	배형근	84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사장	광고협찬 300만원
21	이용훈	84	주식회사 인타임즈인 대표이사 사장	광고협찬 1000만원
22	신석우	85	두함지개발(주) 대표이사	현금 100만원
23	피승호	88	은성 대표	은성회관 식사권 200만원
24	정경한	89	성담 부회장	광고협찬 300만원
25	이동섭	89	경영대학 교수회장 / 일진그룹 회장	75인치 TV 1대
26	김평국	89	(주)디유넷 대표이사	광고협찬 400만원, 무드등 20개
27	정의선	89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금 200만원
28	송승민	90	(주)SJP 대표이사	현금 50만원
29	천영석	00	(주)트위니 대표이사	광고협찬 200만원
30	홍새미	07	FASTFIVE CMO	노트 500개
31	권오섭	지질78	경제인회 회장 / 엘앤피코스메틱(주) 회장	현금 300만원
32			파르나호텔(주)	'그랜드 키친' 2인 뷔페 이용권 2매

기업가 부문



인타임즈인
대표이사 사장

이용훈 교우
(84학번)

이용훈 교우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으로, 글로벌 교육기업 인타임즈인 창립 후 30여 년간 국내외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인타임즈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끊임 없는 연구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 도입,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글로벌 역량 강화 통합 교육,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약 3만 명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17년부터 발달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하는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이사로 활동하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9월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스포츠와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스포츠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용훈 교우는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청년 권익 개선에 힘써왔고, 발달장애 선수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각종 국내, 국제 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청년 발달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를 활성화하여 포용적 사회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년들이 가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경영인 부문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사장

배형근 교우
(84학번)

배형근 교우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으로, 현대자동차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MECA 전략(Mobility, Electrification, Connectivity, Autonomous)을 중심으로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과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였고, 현대모비스에서는 재경본부장으로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유동성 강화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4년 1월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업구조 체질 개선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사업구조 고도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순이익은 작년 연간 수익을 넘어서는 등 우수한 실적을 이루어냈다.

아울러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직문화의 혁신을 이끌었다. 주니어 직원 중심의 Change Leader Board 운영,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회사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데 앞장서며 열린 소통을 실천하였다. 또한 글로벌 기업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UNGC) 가입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하며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공직자 부문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교수 (89학번)

최지영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89학번으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30년 넘게 공직 일선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헌신해왔다. 재정경제원 국고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장, 외환제도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았다. 또한, 세계은행그룹(WBG)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두 차례 선임 이코노미스트(Senior Economist)로 파견되어 국제무대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국제금융국장을 거쳐 국제금융·외환 및 대외 분야의 주요 현안을 기민하게 해결하고 대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국제경제관리관으로서 외환·국제금융, 대외경제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국제금융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간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도하며, 지난해 10월 한국의 세계 국제지수(WGI) 편입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국 국제시장의 도약과 대외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양국 간 환율·외환시장 및 투자 관련 실무 협의를 총괄하며 10월 29일 협상 타결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와 대미수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환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특별상 부문



79학번 동기회

79학번 동기회는 오랜 세월 모교를 향한 변함 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교우애를 실천하며, 우리 경영대학 교우회의 귀감이 되어 왔다. 매년 '힐링트레킹', '교우의 밤' 등 주요 교우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79학번의 단합된 역량과 깊은 우정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끈끈한 결속은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지원으로 확대되어 장학사업이라는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4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해 3,5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의 장학금을 경영대학에 기부하기로 한 결정은 모교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후배 양성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은 귀중한 실천이라 하겠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동기들이 함께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모교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힘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즘 모교사랑과 동기사랑이라는 고대의 아름다운 전통이 예전만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79학번 동기회는 46년의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아끼고 격려해 온 따뜻한 우정을 바탕으로 그 전통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경영대학에서 함께 꿈을 꾸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동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온 삶을 서로가 응원해 온 그 마음은, 오늘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우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79학번 동기회의 변함없는 모습은 경영대 교우회 전체의 자랑일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3월 24일(화) 오후 6시 30분 역삼동 소재 파크루안에서 <2026년 상반기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은 손재일 부회장의 부친상을 위로하고 지난 주말 별세한 신수식 명예교수를 추모했다. 이어 “작년 한해 동안 많은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로 여러 행사들이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 또한 새로운 부회장들을 많이 영입했고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올해에도 교우회는 젊은 교수들을 영입하여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고 운영면에서 내실을 다지겠다. 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언수(경영81) 경영대학장은 신수식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무사히 마무리 됐음을 전했다. 김 학장은 학사 보고를 통해 경영대학의 현황을 알리고 세계 대학평가 기관인 THE(영국 타임즈고등교육)와 QS(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최근 발표를 인용해 경영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했으며 현 학장단의 전략 방향인 3C4Tech의 현재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조성욱(경영92) 감사가 감사보고를 진행했고 이어서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은 2025년 자금운용 보고 및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을 안내했다. 특히 4월 25일 개최 예정인 힐링트레킹 참석을 독려하며 지난 2년 동안 우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삼세번' 도전으로

다시 한번 개운사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을 알렸다.

신임 감사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신임 감사는 장수재(무역93) 교수와 김명현(경영93) 교수가 임명됐으며 이날 김명현 교수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하고 장수재 교수가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회의를 마치고 만찬 시간으로 이어졌다. 2025년 경영대 교우의 밤에서 '올해의 교우상'을 수상한 현대차증권 배형근(경영84) 상임이사의 건배 제의로 교우들의 만남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언수 경영대학장, 신호정(경영86) 대외협력처장, 배형근 상임이사, 최철원(무역88) 부회장, 나현승(경영91) 경영대 부학장을 포함해 34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Based on Basic,
Develop through Inspiration.

BNI Global Inc.

비앤아이글로벌

최 승 기 대표 경영95



여러 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과 회사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앤아이글로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영학과 95학번 최승기입니다. 비앤아이글로벌은 Basic and Inspiration의 약자이며 기본에 충실하고 영감과 상상력을 통해 성장하자는 의미로 회사명을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식품회사 및 사료회사에 설탕, 식품첨가물, 유제품, 옥수수, 소맥 등 식품과 사료의 원료를 공급하는 소재 전문 B2B 회사입니다.



비앤아이글로벌은 아시아 최대 설탕 회사인 태국 업체로부터 정백당을 수입, 유통하고 있고 안산에 CSM이라는 공장에서 분당, 세립당, 쌍백당 등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종류로 설탕을 가공해서 고객사에 공급합니다. 또 다른 회사인 벡스트렌스는 물류회사인데 저희가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 해상 운송 포워딩 업무와 경남 양산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해외법인에서 설탕 및 곡물의 3국간 무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4개 회사가 수출입 유통, 제조, 물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비앤아이글로벌은 그 가운데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2002년 2월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했는데, 첫 직장이 2024년에 창립 100주년을 한 삼양사였습니다. 삼양사에서 원당을 수입하고 설탕을 수출하는 부서에서 2007년까지 만 6년을 근무하고, 이후 다른 회사에 조인하여 대표를 맡아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에 있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직접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회사에서 귀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나요?

우리 회사는 식품과 사료의 원료와 소재인 설탕, 유지, 첨가물, 유제품, 옥수수, 소맥 등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회사이므로 제과·제빵, 음료 등의 식품회사 및 대부분의 사료회사들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설탕은 크게 사탕무와 사탕수수에서 생산이 되는데, 주로 우리가 먹는 것은 사탕수수에서 나온 원당을 정제한 정백당입니다. 사탕수수를 착즙하면 cane juice 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1차 정제하고 결정화한 것이 원당이고, 이를 추가로 정제하여 순도를 높인 것이 정백당입니다. 원당은 정제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비정제원당이 있습니다. 비정제원당은 포도당, 과당 이외에도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설탕(갈색설탕)은 정제 후의 설탕에 당밀을 후첨하는 것으로 비정제원당과는 제조 방법이 다릅니다.

최근 대체당을 이용한 '제로' 제품의 열풍으로 알룰로스 등의 대체당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제로' 열풍이 있었고 제로 트렌드가 식품업계 전반으로도 확산됐었죠. 지금은 '제로'보다 '저당' 컨셉으로 바꿨어요. 요즘은 '저당'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제로에 사용되는 설탕, 대체당 중에 상당 부분은 화학적으로 생산된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설탕 대비 약 많게는 300배 단맛을 가지고 있고 인체의 유해성 여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알룰로스가 대체당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 대체당과 차별되는 자연에 가까운 단맛인 비정제원당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2007년 삼양사를 그만두고 사업 초창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큰 위기를 맞아서 세상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힘들었던 4년 동안 다른걸 해야 하나,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하나 등등 여러 생각을 하면서 버텼는데 2011년쯤부터 설탕 할당관세가 생기면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잘 극복한 거 같습니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영업, 구매, 채권, 물류 등 사업 전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믿습니다.

설탕을 수입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 설탕 시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글로벌 시세가 워낙 다양하게 변화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잘 수입해야 합니다. 10년 치 차트를 보면 주식시장 변화보다도 더 드라마틱 해요. 하루에 3~5%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출렁이는 국제 선물시장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가져오느냐가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판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설탕 원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관건이죠. 설탕은 특히 국제유가와 연동이 많이 됩니다. 설탕으로 자동차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설탕만 보면 단순할 것 같지만 이면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글로벌 커머티나 매크로 등 달러 환율과 함께 추이를 잘 지켜보고 마켓을 잘 읽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추구하는 경영철학과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코어 밸류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우리 회사의 미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좋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전략은 핵심사업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 그리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외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회사 코어 밸류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잘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서로 배려하고 협업하는 문화, 열정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로 목표 달성하는 문화, 솔선수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호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삶의 밸런스나 로열티를 높이고, 또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 4일 출근제를 작년 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4.5일제를 시행하다가 2025년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하루의 반절은 재택근무, 나머지 반절은 유급휴가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식품, 사료, 원료 소재 위주인 B2B 사업으로 성장해 왔었는데, 그 성장과 더불어 B2C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비정제원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제로 열풍이 사그라들고 식품회사에서 '저당'을 다루고 있는데 건강을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포도당, 과당 외 미네랄, 비타민 등이 보존되어 있는 비정제원당을 국내 유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우수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Bridge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재학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일 기억나는 건 고연전 때인데요. 제가 입학하던 해인 1995년에는 고연전을 했는데 1996년도에는 연세대 사태 때문에 못했고 1997년에는 고연전을 개최했어요. 저는 96년에 입대했었죠. 저랑 친하게 지냈던 96학번 후배들이 97학번 후배를 받았는데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구에 있는 저에게 와달라고 연락이 왔고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고연전에 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도착 후 신촌으로 갔어요. 밤새워 후배들과 놀다가 새벽 5시에 버스 타고 내려가 부대에 복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우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상무가 연대 졸업생인데 항상 고대 졸업생을 부러워해요. 고대 졸업생들끼리는 선후배를 잘 끌어주려고 하는 반면, 연대 졸업생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거 같습니다. 제 핸드폰 끝 번호가 1905인데요. 군대 전역 후 복학하면서 1998년도에 핸드폰을 처음으로 개통했는데 '1905' 번호를 선점했었죠. 예전에 대기업 구매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1905라는 번호를 고대 졸업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숫자라고 생각할 텐데 그분이 고려대 졸업생이라 제 핸드폰 뒷자리를 보고 출신 학교를 물어본 것 같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듯 선후배님들이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고대인으로서 뜨거운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다른 교우에게도 도움을 주고 응원할 수 있게 되겠죠. 교우들이 도와주셔서 저 역시도 발전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NI Global

(주)비엔아이글로벌은 견고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국내 유통·물류망을 바탕으로 설탕을 비롯한 식품첨가물, 유제품, 곡물 등 식품 및 사료 산업에 필요한 원료와 소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설탕

- 정백당
- 특수당
- 비정제원당



곡물

- 옥수수
- 소맥
- 소맥피
- 대두박
- 채종박 등



식품첨가물

- 결정과당
- 트레할로스
- 알룰로스
- 에리스리톨
- 핵산
- 덱스트린 등



식용유지

- 대두유
- 카놀라유
- 해바라기씨유



물류, 창고

- 포워딩
- 물류 관리

Based on Basic & Develop through Inspiration

www.abcnagri.com

(주)PSK홀딩스 박경수 회장

고려대에 10억 원 기부... 반도체 인재 양성 '장기 투자'



박경수 회장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주)PSK홀딩스(회장 박경수·경영기)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장학기금'을 조성했다고 2025년 11월 19일(수)에 밝혔다.

이번 기부는 현금 5억 원과 10년 신탁기부 5억 원으로 이루어졌다. 현금 5억 원은 즉시 고려대학교에 전달되어 반도체 분야 인재 장학금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5억 원은 10년간 신탁 운용되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이 고려대에 장학금으

로 지급된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는 10년 후에는 원금 5억 원도 전액 학교에 귀속되어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재직자 중 대학원(석·박사) 진학 대상자에게 지원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PSK홀딩스는 그동안 고려대학교와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경영대학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기금, 2013년 차이나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기금, 2015년 창조캠퍼스건립기금 등 총 3억 원 이상을 꾸준히 기부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번 10억 원 기부로 (주)PSK홀딩스의 고려대 누적 기부액은 13억 원을 넘어섰다.

박경수 회장은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산업의 근간"이라며 "이번 장학기금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9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취

(주)에스제이피 송승민 대표이사

체육위원회 및 5개 운동부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약정



송승민 대표이사

고려대학교는 1월 23일(금) 본관 총장실에서 송승민(경영 90) (주)에스제이피 대표이사의 체육위원회 및 5개 운동부 발전기금 기부약정식을 진행했다.

송승민 대표이사는 총 1억 원을 체육위원회와 5개 운동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약정했다. 해당 기금은 학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체육활동 지원 등 대학 체육 전

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약정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전재욱 대외협력처장, 조훈희 체육위원장과 기부자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의 의미를 나누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기부서 전달, 기부증서 및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송승민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배운 도전과 공동체 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며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앞으로도 교우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체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과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1월 23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취



한국 보험학의 권위자, 신수식 명예교수 별세

신수식(상60)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3월 21일 84세로 별세했다.

신수식 명예교수는 고려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과 석사, 박사과정 수료했으며 독일 쾰른대에서 사회보험을 연구한 뒤 1968년 모교 상과대학에 부임하여 '노사관계론', '보험학' 등을 강의했다. 1989년 기업연구원 원장, 1995년 고려대 경영대학장, 1998년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007년에 퇴임했다.

당시 기초 연구만 이뤄져 있던 보험학을 경영학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고 국내 대학의 보험학 교육을 이끌었으며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여 1999년에는 한국보험학회장을 지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앞장섰으며 각종 보험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사회보장론>, <보험경영론> 등이 있으며 <한국보험사>가 대표적이다.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한국 보험사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

아 2008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험 분야 상인 제3회 대산보험대상을 수상했다.

신수식 명예교수는 2005년 모교·경영대 100주년을 앞두고 경영대학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당시 생존하고 있는 보성전문 상과 졸업생들, 명예교수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개인 소장물, 각종 기록물, 문헌 등을 수집해 경영대의 전통과 발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 <경영대 100년사>를 펴냈다.

또한 1981년 11월부터 1984년까지 모교 야구부장을 맡아 선동렬(경영81), 박노준(경영82) 교우들이 속한 고려대 야구부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으며 야구부 선수 스카웃을 위해 지방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는 등 선수 발굴에도 힘썼다.

교우회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굼직한 교우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보탤고 사무국에도 종종 방문하여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신수식 명예교수의 장례식은 3월 22일부터 24일 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301호실에서 열렸다.



교우동정



구자열(경영72)

2026년 2월 25일
구자열 전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이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상신(경영81)

2025년 12월 1일
박상신 교우가
DL이앤씨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민태(경영84)

2025년 10월 24일
김민태 교우가
코오롱FrC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임재욱(무역84)

2025년 12월 11일
임재욱 교우가
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됐다.



홍사경(경영85)

2025년 12월 15일
홍사경 교우가
현대C&R 대표이사
전무로 선임됐다.



김광옥(무역86)

2025년 12월 22일
김광옥 교우가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에
선임됐다.



김기영(경영86)

2026년 1월 1일
김기영 교우가 제44대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철근(경영86)

2026년 1월 7일
정철근 교우가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실
주필로 선임됐다.



심상보(무역87)

2026년 1월 1일
심상보 교우가
ZKW그룹 CFO로
취임했다.



안동현(경영87)

2026년 1월 16일
안동현 교우가
ING금융시장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전용석(경영87)

2025년 12월 3일
전용석 교우가 아시아·
태평양 회계사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문희(경영87)

2025년 12월 19일
최문희 교우가
한국FPSB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종춘(경영88)

2026년 1월 2일
박종춘 교우가
JB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창희(경영89)

2026년 1월 26일
김창희 교우가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
으로 취임했다.



심종섭(경영89)

2025년 11월 5일
심종섭 교우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에
임명됐다.



이정엽(경영89)

2026년 1월 1일
이정엽 교우가
HMM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고병규(무역90)

2025년 12월 29일
고병규 교우가 한국산업은행
부행장기획관리부문장
으로 선임됐다.



서영일(무역90)

2025년 12월 24일
서영일 교우가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충진(경영91)

2025년 12월 24일
김충진 교우가
금융감독원 전략담당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재형(경영92)

2025년 12월 22일
김재형 교우가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장에
임명됐다.



김완중(경영93)

2025년 10월 30일
김완중 교우가
SK AX 사장으로
선임됐다.

**박헌(경영93)**

2025년 10월 15일
박헌 교수가
인천공항세관장에
취임했다.

**이영권(경영93)**

2026년 1월 5일
이영권 교수가
크라프트하인즈코리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심정은(경영94)**

2025년 11월 12일
심정은 교수가
국제회계사연맹(FAC)
이사로 선출됐다.

**이철웅(경영94)**

2025년 12월 3일
이철웅 교수가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조자룡(경영94)**

2026년 1월 1일
조자룡 교수가
SKFC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오동철(경영97)**

2026년 3월 1일
오동철 교수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교수로 승진했다.

**김강세(경영99)**

2025년 11월 18일
김강세 교수가
숨고 CEO로
선임됐다.

**김현정(경영06)**

2026년 1월 5일
김현정 교수가
삼화페인트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병기(경영09)**

2026년 2월 27일
한병기 교수가
한국세법학회 제20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 교수동정**배길수(경영78)**

모교 배길수 교수가
장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박종원(경영79)**

모교 박종원 교수가
장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신호정(무역86)**

모교 신호정 교수가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으로 임명됐다.

**김중혁(무역87)**

모교 김중혁 교수가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으로 임명됐다.

**나현승(경영91)**

모교 나현승 교수가
한국증권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윤면식(경영78) 2026년 1월 24일 아들 동섭 군
박병근(경영79) 2025년 12월 6일 딸 정은 양
임 경(경영79) 2026년 2월 21일 아들 건 군
황보평(경영79) 2026년 5월 16일 아들 수호 군
배형근(경영84) 2025년 12월 6일 아들 준형 군

전우현(무역88) 2026년 5월 16일 아들 용진 군
이규원(경영95) 2026년 5월 9일 본인 결혼
최태규(경영07) 2025년 12월 13일 본인 결혼
위소정(경영09) 2026년 4월 12일 본인 결혼
이건영(경영18) 2026년 5월 31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경수(상55) 2025년 11월 4일 본인 별세
박대식(상55) 2026년 3월 20일 본인 별세
신수식(상60/ 명예교수) 2026년 3월 21일 본인 별세
성준희(경영69) 2026년 2월 18일 본인 별세
윤면식(경영78) 2026년 1월 26일 모친상

故박수완(경영79) 2025년 12월 26일 모친상
임영진(경영79) 2025년 12월 15일 빙모상
박종원(무역82) 2025년 11월 25일 모친상
손재일(경영84) 2026년 1월 5일 빙부상
2026년 3월 21일 부친상

당신이 옳아요



황인강
경영61·수필가

새삼스럽게 가정에서도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하고 생각할 것 같다. 지금은 분명 여성파워 시대다. 옛 미풍양속을 지키되 대화에서도 여성 우위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가정의 평화가 위태하다고 모두들 걱정한다. 걱정을 넘어 파탄지경이 된 가정도 꽤 있다고 한다. 행복의 조건에 원만한 가정 평화가 우선이라 하면서도 예상외로 안 되는 것이 가정 평화인 것 같다.

얼마 전 저녁 어둑해진 무렵, 옆동 계단 입구를 지나치는데 두 젊은이가 옥신각신하며 떠나가려는 여자와 이를 막는 남자와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여자가 집을 나와 나가려는 것을 남자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해서 집을 나가려는 여자와 이를 말리는 이상한 상황이 입구까지 나와 티격태격하고 있는지 안타까웠다. 인간사회는 남녀가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며 생활을 이어간다. 그 많은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 가정을 위하여 활동한다. 누구든 부부간의 관계를 끊으며 살 수는 없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가정이 부부간의 불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전에는 가정생활에서 예절이 몸에 배도록 양육되었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 바빠 따듯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가정에 남편의 권위와 존재가 희미해져 가정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주어져 있어 남편과 아내의 기싸움이 잦은 것이 오늘날의 가정인 듯싶다.

오래전 중고등학교 근처의 길을 지나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다. 학생들의 대화 중에 욕이 섞여서 쓰는 것을 들었다.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욕을 쓰는 습관이다. 자연스럽게 욕설을 쓴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들어왔지만, 막상 학생들 대화에서 직접 들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내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안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사실이다. 옛적 우리가 중·고 시절에는 특별한 말썽꾸러기 학생들이 욕설을 썼을 뿐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 대화에서 욕지거리 사용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친구에게 전염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인가. 그들이 자라 오늘날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 버릇이 어디 가겠는가.

요즘엔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과거에는 가장인 남자가 그런대로 일하는 남자로서 권위와 체면을 지키며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시되고 경제권도 대부분 아내에게로 가 있는 상태여서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그나마 그런대로 쓸 만한 남편 쪽에서 아내에게 쓰는 대화의 자세를 낮게 가져 아내를 최상의 상대자로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많이 떨어지면서 젊은 남편들의 푸념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현실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이라고 영원한 평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다. 엇그제까지 월만하던 가정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이 오늘날의 가정이다. 부부간의 문제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뿐 세대를 불문하고 불안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관계가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일종의 언어순화이자 아내의 마음에 맞는 최대의 존경어로 대하는 태도로 적합하지 않을까. 말끝에 '소'로 끝나는 말이다. 좀 듣기 거북해도 습관이 되면 말하는 남편이나 들어 주는 아내 쪽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 부부간의 싸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면 조금은 유치하게 들려도 결과가 좋으면 유효하지 않겠는가. 가정이라도 안락하면 다행이라 여겨진다.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 하이소, 내가 졌소이다”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웃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겸양이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받아들여 과감히 수용해야 하리라.

비록 유머러스하지는 않지만, 부부간에 웃음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행복의 유머가 어디 있겠는가.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의 말을 한 번 더 기울여 듣는 저녁, 밥상의 국이 따듯해지는 행복감을 느껴보심이 어떠신지요.

쑥부쟁이의 노래



박찬성 경영68, 수필가
한국수필 등단(2020년)·한국수필가협회 회원
제1회 한국수필 우수 작품상(2022년)·수필집 [변장한 축복]

노래老來의 가을은 웬지 소녀처럼 센티해지는 계절이다. 센티해진다는 것은 어쨌든 순수해진다는 의미가 아닌가.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흥얼거리다 나도 모르게 서글픈 감정의 계곡에 빠질 때도 있지만, 소설가 정비석의 수필 ‘들국화’의 한 대목을 읊조리기도 한다. “다알리아나 칸나처럼 빛깔도 야단스럽지 않고 보랏빛의 부드럽고 순결한 맛은 볼수록 마음을 이끌리게 한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외로이 피어 있는 기쁨이 그윽하고, 봄 여름 지나 가을에 피는 기개가 가상하다.....”라는 들국화 예찬론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수필이 아직도 나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작가와의 아주 작은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다.

70년대 초 갓 입사한 비재非材의 은행원이 똥판지같은 용기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들국화’를 영역하여 일간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에 투고했다. 편집국으로부터 작가의 허락을 받은 거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 난생처음 가던 길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친걸음이라 원고지를 들고 정비석 선생의 동부이촌동 자택을 찾았다. 차를 마시며 원고를 일별한 후 응낙하셨던 것 같다. 젊은이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 줄품의 허물을 간과하셨던 것이리라. 며칠 후 발간된 신문을 펼쳤을 때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은 산전되는 번역상의 미숙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글머리를 사진으로 꾸민 꽃이

웬걸, 산야에 피는 들국화가 아니라 화단에서도 볼 수 있는 원예종 국화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들국화라는 꽃은 없다. 노란 산국이나 하얀 구절초, 연보랏빛의 쑥부쟁이 꽃 등을 몽똥그려 들국화라 부를 뿐이다. 수필에 등장하는 보랏빛 쑥부쟁이야말로 대표적인 들국화인데 무슨 인연인지 나와는 어릴적부터 친숙한 사이였다. 초등 시절부터 고등학생이 되도록 12년간 하루같이 넘나들던 나지막한 산, ‘핑구재’의 가을은 쑥부쟁이뿐 아니라 각종 야생화가 지천이었다. 언덕배기를 넘어 잠시 가쁜 숨을 돌리러 길옆에 풀석 주저앉으면 바로 옆에서 한들한들 고개를 흔드는 보라색 꽃의 모양새가 마치 인사를 하는 듯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머리를 곱게 빗은 단아한 소녀의 양증맞은 얼굴이었다. 어려서 어떤 열병을 앓고 난 후로 걸음걸이가 온전치 않던 그 학생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던 날은 재를 넘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는데 쑥부쟁이도 설손 못들었을 리 없다. 집안 식구들도 모르는 어린 소년의 비밀을.

쑥부쟁이에겐 친구가 있었다. 꽃가루를 옮기며 품삯을 챙기는 벌레와 언제나 헌신적인 바람이었다. 바람은 괜스레 그의 몸통을 흔들어대는 심술쟁이가 아니었다. 원체 꽃대궁이 허약한 쑥부쟁이로 하여금 주렁주렁 꽃송이를 하늘을 향해 잘 이고 섰으라고 하체를 단련시키던 조련사였다. 한 발짝도 떼 본 적이



없는 그에게 산 너머 사는 꽃 친구들의 소식이네, 비 소식이네를 전해주던 일 역시 바람의 몫이었다. 아하, 지금 생각하니 나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잠시 내 곁에 머물다 바람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소식조차 끊긴, 동네 앞개울에서 물장구치던 개구장이들, 여드름이 발갱게 꽃피던 시절의 벚들, ‘엇갈리어 지나가다 얼굴 반쯤 그만 봐버린 인연들’, 모두 지금의 나로 일으켜 세우려던 더없이 고마운 바람이었던 게로구나. 바람은 지나갔으며 그 바람이 남기고 간 온기는 아직 이내 영혼 속에 깃들어 있으리라.

쑥부쟁이의 전생은 두메산골 불쟁이의 맏딸이었다지. 이 산 저 산을 누비면서 쑥을 뜯어 올망졸망한 십여 명의 동생들의 입을 책임져야 했던 처녀 가장의 그 기구한 운명에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이 어디있을까만, 또 어느 누가 그 고달픈 자리를 탐내랴. 그럼에도 칠 형제 집의 막내로 하늘의 점지를 받았던 나는 아닌 말로 어머니의 친구 같은 맏딸로 태어났었다더라면 하는 가정법을 주책없이 지금도 구사하고 있다. 왜냐. 바람 잘 날 없던 가지 많은 나무, 남자 일색이던 집안에서 풀길 없는 한을 앞개울로 가서 묵은 빨래를 치대듯 말로나마 시원하게 씻어드릴 수 있었으련만... 버거운 삶에 무슨 위로라도 되는 양 “낭중에는 막녕이네와 살란데이” 라고 외던 어머니, 흑여 백수를 하셨다면 과연 나와 함께 약골인 아내가 마음 편히 모시거나

할 수 있었으려나. 속병으로 환갑 지경에 앞서가신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눈물샘이 막혔던 대학생에게 달빛 같은 어머니의 사랑은 ‘현존하는 거대한 부재’로 남아 있기 때문일 터이다.

산골 처녀는 깊은 산중에 노루를 사냥하다 다친 도령을 발견하고 치료해 주면서 정을 준다. 못 잊어 산골을 다시 찾아온 도령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그리움과 기다림은 운명이 된다. 쑥을 찾아 산기슭을 헤매다가 절벽에서 실족해 떨어져 죽은 것도 그리움 때문이었으리라. 그 처녀가 죽은 자리에 무성하게 피어난 꽃이 바로 쑥부쟁이라고 하지 않던가.

인생의 늦가을을 맞는 노객은 왜 좌정하지 못하고 이리 서성대는 것일까. 현재라는 실존의 시간을 온통 회한의 과거와 불안한 미래에 매몰시켰던, 그러니까 결코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갈 준비만 해왔던 삶의 족적을 멀찌감치서 바라다본다. 어찌면 ‘현재’를 살아낸다는 것이 두려웠던 건 아닐까. 들판의 늦서리를 잘 견뎌온 쑥부쟁이도 이제 북풍한설을 만나면 꽃잎을 떨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새봄을 맞을 꿈에 젖을 것이다. 이내 가슴 한구석이 행하니 빈 듯한 허허로움이 암흑 속으로 사라진 과거를 되살려 현재에 잇대어 미래에 연결시켜 보려는 둔필을 계속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일 듯하다.

팔십종수(八十種樹)의 도전, 그 꿈을 이루다

-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돌아왔다



손윤기
상회

부엔 까미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이다. “부엔 까미노(Buen Camino)”란 말은 스페인어로 “좋은 길”이란 뜻인데,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다. 특별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순례길을 축복합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는 순례길을 걸으며 매일 매일 이 인사말을 수십 번 주고받았다. 어느 날은 백 수십 번을 했을 것 같다.

나는 독일 Frankfurt에서 CBMC(한국기독실업인회) 유럽대회 행사를 마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하여 스페인 마드리드로 갔다. 그곳에서 하루를 자고 Hemingway가 즐겨 머물렀다는 도시인 Pamplona로 기차를 타고 가서 하룻밤을 머물렀다.(순례길을 걷는 도중, 이 도시를 다시 지나가게 되어 헤밍웨이가 즐겨 찾았다는 <Irana Cafe>에 들러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다음 날 다시 버스를 타고 프랑스 국경 작은 마을인 St. Jean Pied de Port로 가서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음으로 순례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2025년 5월 3일! 나는 역사적인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의 대장정에 올랐다. 그리고 출발한 지 35일 만인 6월 6일 오후, 종착지인 Santiago de Compostela 대성당에 도착했다. 이 성당 광장에는 순례길을 완주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수많은 순례자들로 북적였다.

장거리를 달려와 피로한 순례자들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다. 배낭을 베고 하늘을 향해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덩실덩실 기뻐하는 사람들, 노래하며 춤추는 사람들, 동반자 연인을 번쩍 들어 안고 즐거워하며 웃음을 짓는 모습들, 순례길 완주를 기념하여 사진 촬영에 분주한 사람들,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각양각색의 Pilgrim들로 광장은 뜨거웠고 흥분의 도가니였다.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 북쪽에 있는 Santiago de Compostela의 대성당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1993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산티아고로 가는 코스는 10개가 넘는다. 가장 대표적인 코스는 ‘프랑스 길’이다. 전체 순례자의 8~90%가 이 길을 택한다고 한다. 나도 이 코스를 택했다. 이 코스는 프랑스의 국경의 작은 마을을 출발하여 피레네 산을 넘어 스페인 땅으로 들어가서 30여 일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서양을 향하여 걷는 긴 코스이다. 이 코스를 <순례자>의 작가 파울루 코엘류(Paulo Coelho)가 걸었고,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이사장도 이 길을 걸었다고 한다.

“Santiago”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어 표기이며, 로마자 표기로는 St. James라 부른다. 야고보는 예수의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의 형이다. 그는 생전에





이베리아반도 일대에서 복음 활동을 했으며, AD44년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무덤이 Santiago de Compostela 성당에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에 이곳을 방문했다고 한다. 유럽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성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 떠났던 순례가 1000여 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순례길을 걸으며 세계 여러 나라, 약 40여 개국으로부터 온 많은 순례자들을 만났다. 순례자들의 나라별 순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위는 단연 스페인일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이 많았고 미국, 캐나다 또한 많았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1위가 틀림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을 만났다. 순례길을 찾는 한국인은 적어도 10위권 이내로 마크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매일매일 지구촌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또한 큰 기쁨이었고 만남의 큰 축복이었다.

‘KOREA’의 위상이 급상승한 느낌이 들어 매우 기뻐다.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K-Culture, K-Pop, K-Drama, K-Food 등의 효과라고 느껴졌다.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했느냐고 물으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사람과

K-Pop을 듣고 따라 부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의 위상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분명 우리 문화의 힘이라.

순례길을 걸으며 다양한 순례자들을 만났다. 시종일관 맨발로 걷고 있다는 독일 Darmstadt에서 온 수도사, 휠체어를 타고 순례길에 오른 이태리의 장애인 여인, 순례길을 걷고 난 후 부름을 받아 성당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이면 80세가 된다는 미국인 Talyer, 신혼여행으로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 1살짜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함께 순례길을 걷는 독일인 부부, 애견(愛犬)을 데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 돌다리를 놓아주며 물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수고한 봉사정신 투철한 브라질에서 온 루카스 형제, 길을 묻는 우리 일행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환대한 천사 가정,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두 팔을 번쩍 올려 “할렐루야”를 외치며 맑고 푸른 하늘,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대자연에 노래한 체코인, 또 푸드 트럭을 운영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아마추어 화가, 그는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춤도 추는 것이 매우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인가 이른 새벽 순례길을 출발했다. 코를 훌쩍거리며 나를 보고 휴지를 건네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온 Christine은 “slowly, slowly”하며 무리하지 말라고 가볍게 내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주기도 했다. 일면식도 없는 순례길에서 만난 여인의 그 작은



몸짓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참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81세의 덴마크 노신사, 나를 향해 “Hey, young boy”하며 불렀던 80세의 스위스 사람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캡모자를 쓴 동양인인 내가 아주 젊게 보였던 것 같았다. 내 나이를 말하자 그는 놀라는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경의를 표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1970년생인 Paul은 내 나이를 확인하고는 “Really? really?”하며 내 나이가 결코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건강을 잘 지키느냐고 묻기도 했다. 내가 걸었던 길에서 확인된 80대의 순례자는 단 2명뿐이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참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가 되기도 했고 흥미롭기도 했다. 아마도 내가 만난 이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또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 00대학교의 김00교수이다. 그는 이번이 세 번째 순례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15년간 병석에 계셨던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슬픔을 달래기 위한 순례길이었다고 했다. 두 번째는 포르투갈 길에서 시작하는 짧은 여정이었고, 이번 세 번째는 9월에 태어날 태아(태명:찰떡이)의 사진을 찍어 가슴에 품고 앞으로 태어날 첫 손자와 대화하며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걷는 기도의 순례길이어서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 살아온 허물이 자녀손들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며 사죄의 기도를 하며 걷는다고 했다. 그리고 외손자와 태어날 친손자를 위한 기도문(성경 말씀)을 돌에 써서 가지고 왔다. 철의 십자가 기도탑에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 김 교수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낳아 기도로 양육한다면 이 사회,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스페인인 가톨릭 국가이다. 작은 마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성당은 하나씩 있다. 가톨릭 전성기에 스페인이 중심에 있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예배당이 아닌 도로변, 들판, 심지어는 밭 가운데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순례길 도중에 통과한 도시 부르고스(Brugos)에서 방문했던 Brugos Santa Maria 대성당은 스페인 3대 성당중의 하나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내가 본 성당중 최대 규모였다.

순례길은 매우 다양하여 아스팔트 길도 있고, 평탄한 좋은 길도 있으며 오붓한 오솔길, 새소리 들리는 숲길,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길, 아름다운 꽃길도 있었지만, 반면에 자갈길, 바윗길, 진흙탕 길, 오르막 내리막 비탈길 등 힘든 길도 참 많이 있었다.

이른 아침 출발할 때는 소풍 가는 어린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하지만, 오후 도착 지점에 이를 때쯤이면 배낭은 바위처럼 어깨를 짓누르고, 발은 천근만근, 마치 패잔병처럼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면서 숙소에 들어오고는 했다. 이렇게 걷고 나면 밤엔 골아떨어져 ‘꿀잠’을 자게 된다. 옆에서 또는 이곳저곳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거뜬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할 수 있었음은 정말 놀랍고 다행스럽기도 했다.

배낭이 어깨를 짓누를 때에는 그 무게를 줄이려 종이 한 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한 순례자와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주었더니 그는 명함을 핸드폰으로 찍고는 내게 다시 돌려주면서 말한다. “2g이라도 무게를 줄이고 싶다” 짐의 무게를 줄이고 싶은 그 심정은 그 길을 걸은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실감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게 걸으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길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상쾌함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포도 농장과 밀밭 등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티아고에서 순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 항공편 탑승을 위하여 마드리드로 왔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시내 관광을 했다. 나는 단체 관광버스 대신 혼자서 세발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시내 명소를 돌아보았다. 안내자는 아주 성실하게 요소요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서 고마웠고 마음으로 많이 감사했다. 그는 내게 자신이 베네수엘라에서 온 치과의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본국에서 치과의사의 벌이보다 이곳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든 의사는 최고 엘리트요 수입도 좋다. 의사직을 버리고 이곳에까지 와서 가이드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생각하게 되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가 바로 서고 잘 운영해야 한다는 깨달음과 교훈을 얻음과 함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느낀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도전정신’만이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이에...”라고 하며 시도하지도, 도전하지도 않고 시작조차도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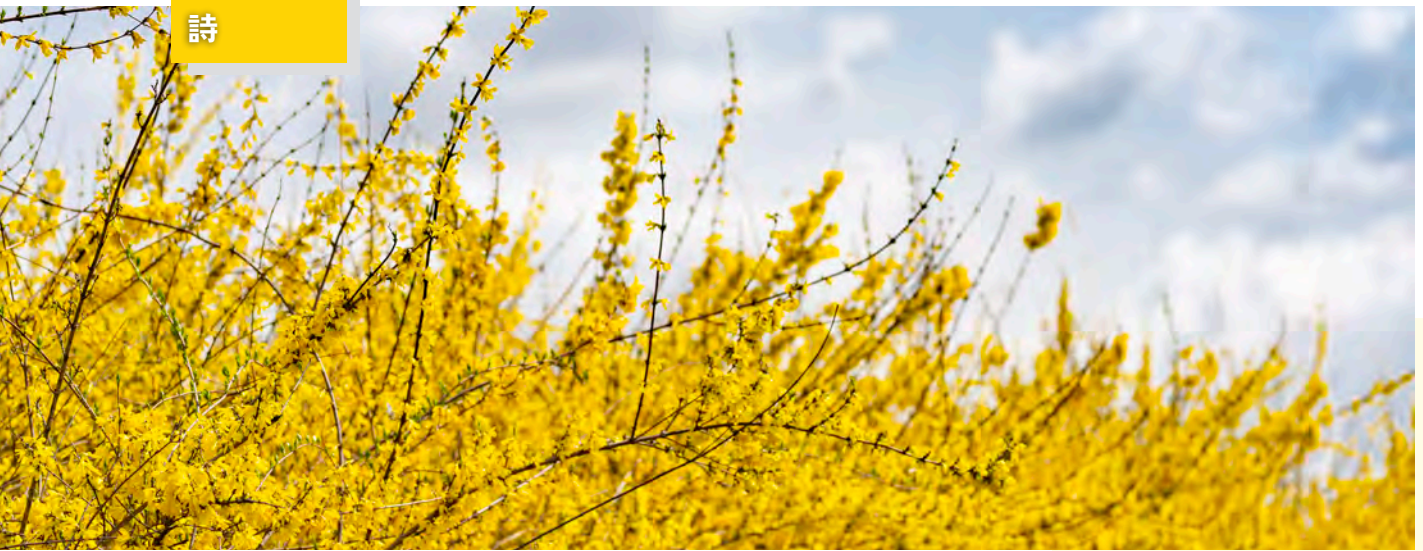
“八十種樹”(나이 팔십에 나무를 심는다)의 민음이 꿈을 꾸게 했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했다고 본다.

성경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는 시편 말씀과 같이, 힘이 들었기에 더욱 분발하게 되었고, 힘을 낼 수 있었으며, 보람도 느꼈고 그래서 성취감도 더욱 충만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라는 말씀처럼, 나의 계획과는 달리 시작부터 마치기까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했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또 올것이나?”라고... 나는 망설임 없이 “No”라고 대답했다. 너무 힘들었기에... 그리고 또 내 나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지난 순례길을 회고해 보니 또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





김진하
상66·시인

봄은 이미

봄은 졸졸졸 개울물 소리에도
봄은 풍닥거리는 다람쥐 눈망울에도
봄은 사랑살랑 걷는 아가씨 발걸음에도
봄은 쫄랑거리는 강아지 꼬랑지에도
봄은 쿠쿠쿠 하는 산비둘기 울음소리에도
봄은 연두색 귀룽나무 어린 잎새에도 이미 와 있다.

먼 산에는 아지랑이 한들거리며
자욱한 안개속에는 봄의 정령이 길을 헤매고
버드나무 물관으로 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가슴에 봄을 듬뿍 안아들인다
한 차례 봄비가 내리고 나면
비비추 새싹들이 땅을 뚫고 툭툭 터져 나오겠지.

아 봄이다!
창가에 부딪히는 햇살이 짹하고 빛난다.



한국 명운 바꾼 세 개의 길, 경부-정보-AI 고속도로 -AI 고속도로 성공에는 원전(原電) 비중 대폭 확대해야-



이 경 순

경영61·계간<글의 세계> 발행/편집인

대한민국 현대사의 궤적을 관통하는 세 개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각 시대가 직면했던 생존의 과제와 국가 도약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1970년대의 산업화, 1990년대의 정보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길’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길 위에 세워진 국가, 인류의 문명은 언제나 ‘길’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길은 물자를 나르는 통로이자 정보가 흐르는 혈관이며, 한 국가의 미래를 규정하는 설계도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고속도로’라는 단어는 단순한 교통 용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담한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전두환 때 초석을 다졌고 노태우 때 제도화되고 김대중 때 꽃을 피운 ‘정보고속도로’, 그리고 오늘날

이재명이 제안하는 ‘AI 고속도로’는 각기 다른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지만, ‘인프라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하나의 철학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산업화의 대동맥을 뚫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대동맥을 놓겠다고 했을 때, 야당과 지식인들은 “쌀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부유층을 위한 유람로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죠. 그러나 박정희는 “길이 있어야 경제가 산다”는 확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의 물류 지도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던 거리는 5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도로를 따라 울산의 석유화학, 포항의 제철, 구미의 전자 산업단지가 줄을 지어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물리적 토대였으며,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근대화의 자신감을 심어준 상징적 이정표였습니다.

둘째, 전두환 때 초석을 다졌고 노태우 때 제도화되고 김대중 때 꽃을 피운 정보고속도로는 디지털 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산업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1980년대, 대한민국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전자교환기(TDX) 국산화와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보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정보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이후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정보고속도로)’ 구축으로 만개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팔트 위를 달리던 자동차 대신 광섬유 속을 흐르는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고속도로’ 덕분에 한국은 IT 강국으로 우뚝 섰고, 오늘날 반도체와 스마트폰 강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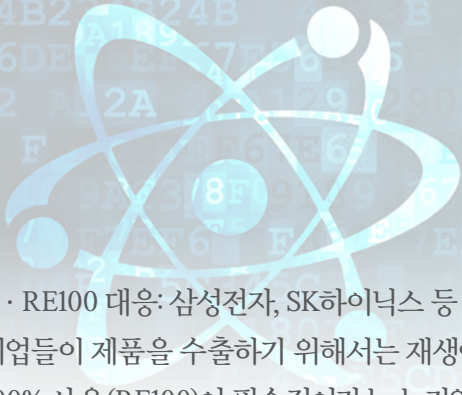
셋째, 이재명의 AI 고속도로는 지능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화와 정보화가 ‘연결’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AI 고속도로’는 그 연결된 데이터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의 인프라를 지향합니다. ‘AI 고속도로’는 단순히 빠른 인터넷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GPU)과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박정희가 공장을 짓기 위해 도로를 닦았듯, 이제는 AI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마음껏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의 확충부터 에너지 공급 체계, 그리고 AI 윤리 규범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사적 프로젝트입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미래의 길을 묻다’
경부고속도로가 제조업 기반의 성장을 견인했고, 정보고속도로가 디지털 서비스의 시대를 열었다면, AI 고속도로는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를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 AI, 에너지 믹스가 성패를 가릅니다. AI 고속도로가 데이터의 흐름을 상징한다면,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엔진의 연료는 ‘전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 대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원자력 발전소 약 0.5기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두고 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강조와 산업계의 원전 확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 환경부의 입장: RE100과 글로벌 표준 대응

이재명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환경부는 ‘에너지 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를 통해 전국 각지의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RE100 대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 분산형 전원: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기보다 태양광, 풍력 등 지역 거점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송전망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 한계: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간헐성(Intermittency) 문제로 인해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기저 전력으로는 불안정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2. 산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 “원전 없는 AI는 자살 행위”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원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고밀도·저비용 전력: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까지 포함해 막대한 전력을 씁니다. 원자력은 가장 밀도가 높고 발전 단가가 낮아 AI 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 SMR(소형모듈원자로)의 부상: 미국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원전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SMR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실적 타협점: 최근 정부 내에서도 원전을 ‘과도기적 보조 수단’을 넘어 ‘현실적 기저 전원’으로 인정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합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3. 과제: 이념을 넘어선 실용적 에너지 정책

AI 고속도로가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병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RE100(재생에너지)은 수출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고, CF100(무탄소 에너지, 원전 포함)은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절실합니다. 정부는 서해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 건설이나 SMR 상용화에 속도를 내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결론**: 길은 닦았으나 연료가 없다면?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가 석유 파동이라는 위기를 넘기며 산업화를 완수했듯, 이재명의 AI 고속도로 역시 전력난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환경과 산업의 조화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AI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가장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라는 실용적 물음에 정부가 더 전향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반대가 무색하게 그 길이 경제의 핏줄이 되었듯,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정보고속도로)이 AI 고속도로 밑받침이 되었듯, 지금의 AI 투자 역시 미래 세대에게는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거둔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AI라는 미지의 영토에 가장 먼저 고속도로를 놓는 국가만이 다가올 100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56 회장 이종순 / 직전회장 이연상

막수회 ●●●

지난 호상 125호에 원고를 탁송했으나 교우회 메일 수신 오류로 게재 못하여 일부 지난 소식을 포함해서 전한다.

지난해 7월은 폭염과 장마 그리고 12월은 정기총회를 하는 달이 되어 2달을 빼고 10회에 걸쳐 월례회를 가졌다. 연인원 69명이 참여해 월평균 7명이 모이는 월례회로 정착이 되었고 또 총경비의 48%에 달하는 재원은 신명철, 오태환, 이남주, 이종순, 최종해 동기가 회사해 주어 넉넉한 자금을 확보하여 월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특이 사항은 지난 9월 신명철 회원이 그동안 투병 생활로 모임에 참석 못하다가 당일도 병원 진료가 있어 막수회 개최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늦게나마 진료를 마치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그날 경비도 전담해 주어 참석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는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양인환 동기가 별세했다는 비보를 받았다. 양 동기는 그동안 동기교우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도 많이 냈고 열심히 참여했으나 2019년 이래 6년 간이나 투병 생활을 하다 유명을 달리했다.

비록 그는 타계했지만 그의 장남 양경무 박사는 고려대학교 의학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한국 법의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문국진 박사의 뒤를 잇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책임요원으로 재직하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냈다. 또한 졸업 후 당시 우리나라 무역의 개척회사인 천우사에 입사하여 홍콩사무소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재홍콩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하며 한국 무역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던 김재강 동기가 지난 8월 타계했다. 우리 모두 두 동기의 명복을 빌어주기 바란다.

지난 설날 신임 이종순 회장의 사업 성공에 내조를 많이 했던 부인 양영희 여사께서 오랜 투병생활 끝에 생을 마감하는 상을 당했다. 설 연휴 기간에 장례를 치러 문상하지 못한 동기가 많았으나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기 바란다.



막수회

경영56동기회 정기총회 ●●●

경영56동기회 2025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025년 12월 24일 약수동 춘천식당에서 개최됐다. 해가 갈수록 참석인원이 줄어들어 올해는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지난해와 같은 12명이 참석했다.

식순에 따라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매년 임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 집행부가 2014년부터 만 12년간 회를 이끌어 왔는데 올해는 이종순 회원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고 회 실무행정은 현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회원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새 회장 선출에 성공했다. 유능한 회장의 선출로 56동기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을 확신한다. 지난 6년 동안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연회비를 받지 않고 일부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회를 이끌어 왔는데 지난 회기 말에는 기금이 거의 소진되어 회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신임 이종순 회장을 비롯하여 강경구, 김행엽, 박종혁, 백공용, 이연상, 임채중, 최화득 회원이 찬조금을 회사했고 권용진 회원은 총회 기금이 많다고 막수회에 기부금을 회사함으로써 앞으로 수년간 연회비 부담 없이 회를 운영해 나갈 재원이 마련됐다.

지난해에 확인된 것만해도 박웅상, 손명관, 홍성구, 김재강, 양인환 등 5명의 동기 교우가 타계해서 180여 명의 동기 중 확인된 것만 68명이나 타계하고 투병 중이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동기를 제외하면 연락 가능한 동기가 30명도 채 안되는 실정에 도래했다.

이제 교우들의 연령이 90대 전후에 도달하여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동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각자 건강관리 잘해서 다가오는 모임은 되도록 많이 참석해서 동기를 만남의 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기 바란다.



정기총회

2025년 송년회 ●●●

동기회 송년회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12시 7호선 논현역 앞 '삼양 만나(전 취명루)'에서 4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기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채영 총무의 인사말에 이어 우리 모두가 을사년을 무사히 보내고 병오년 새해를 맞게 됨을 축하하는 건배를 시작으로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들며 7개월 만에 만나 그간의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내온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에 힘써서 오래도록 만나자고 했다. 회식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5월 전체 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산회했다.



2025 송년회

초암회(서초동 모임) ●●●

서초지역에 거주하던 회원들이 연초에 연회비를 내고 매년 회장은 순서에 따라 바뀌가며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2026년 초암회 회장은 최장규 회원이 맡기로 했다. 그간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모였는데 회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3개월에 한 번 만나기로 하고, 모임 장소는 양재역 8번출구앞 골목에 있는 '양재정육식당'에서 낮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 모임 횟수 축소는 회원들의 지방 이주 외 지방 그리고 고령화로 회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회장 외 김성희, 김순구, 김승현, 강승열, 성영일, 이복성, 정기성, 조일규, 채규학, 정의철 등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4월에 가질 예정이다.



초암회

광암회(강남 모임) ●●●

광암회는 종로와 중구, 강남에 직장을 둔 회원들이 홀수달 둘째 화요일 만남을 갖는 30명이 넘는 최대규모 모임이었지만, 현재는 15명 전후의 회원이 만남을 갖고 있다. 회장의 개인 사정과 혹한기를 피해 병오년 첫 모임을 3월 10일에 가졌다. 사당역 6번출구 인근 '참배나무골오리집'에서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추위로 건너뛴 늦은 신년회를 가졌다. 훈제오리 정식에 막걸리로 건배하며 금년에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활기찬 한해를 보낼 것을 기약했다. 또한 이석증으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광암회



이월회(양재동 모임) ●●●

깍수달 둘째 월요일 12시 30분에 양재역 인근의 식당인 '왕삼돈'과 '정육 식당'에서 만나고 있으며, 회원들이 눈, 귀, 발, 허리 등의 노화와 해외 근무 자녀들과 만나 단기 체류하는 등으로 모임 참석률이 떨어져 성영일 회장을 중심으로 12명 전후의 회원만 모임을 갖고 있다.



이월회

도암회(여의도 모임) ●●●

도암회는 여의도 지역에 직장을 가졌던 회원들이 퇴임 후 타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므로 회원 수가 급감했다. 김 실 회장의 열정적인 회원 관리로 1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셋째 금요일 13시에 63빌딩 옆 라이프빌딩 2층 '호반'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 모범 소모임이다. 서예가이기도 한 손윤기 회원이 중국 동진시대의 시성 왕희지의 고향인 2500년 된 고대도시 저장성 소흥시와 당시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던 '난정'과 왕희지 관련 기념 유적들을 돌아보고 성도 항저우 등을 여행하고자 출국했다. 유명한 루신의 고향이기도 한 소흥은 중국 전통주로 유명한 소흥주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도암회 손윤기 동기의 중국여행

청춘대학(برا보 실버모임) ●●●

동기들 중에서 여행과 자연을 좋아하여 등산, 백두산 및 고구려유적 역사 탐방, 대마도, 장강 크루즈 그리고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 성, 후지산과 알펜루트 등 여행을 함께하고 고려대 불자교우회의 사찰 순례모임 참여 등을 통해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노후생활을 풍부하게 지내고 있다. 현재 회원은 김순구, 김정자, 박인우, 박준성, 박진자, 오영희, 이원태, 이채영, 최민자 등이다. 2025년 10월에는 일본의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위와 히로사키시의 히로사키 성 그리고 신칸센으로 홋카이도로 이동하여 하코다테의 고료가쿠 전망대와 지역 명소를 돌아보고 지역 장인들의 장어와 게 덮밥 등을 찾아 미각을 호강시켰다. 금년들어 1월 22일 통영마을, 2월 19일 삿포로에서 만남을 가졌고, 3월 6일에는 광화문역에서 오후 5시에 만나 금년 여행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아오모리시 세이류지 청동좌불 앞에서

62 회장 김광한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62동기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경영대학 62학번동기회는 2025년 11월 6일 역사역 파크루안에서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가졌다. 총회에서 2026년 동기회 회장으로 김광한 교우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감사와 총무는 송기현 교우와 한상욱 교우가 연임되었다. 총회 후 회원과 부인 30여 명이 모여 점심을 즐기며 환담을 나누었다. 우리 동기들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후 동기회 총모임과 소모임인 말수회, 요산회(등산), 기우회 등 모임을 갖고 서로 우정을 다지고 있으며 그간 요산회에서는 여수 금오산, 장흥 편백나무 숲, 충청도 삼시도, 선유도, 인촌 김성수 선생님의 생가, 거제도, 강원도 죽변, 덕구온천, 오대산 등 수많은 곳을 여행했다. 이제 팔순이 넘어 먼 곳은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자주 모여 즐거움을 갖고있다.



김광한 회장



정기총회 및 송년회

64 회장 박재진 / 사무총장 이석훈 / 감사 김인철

10월 등산회 모임 ●●●

- 일시 : 2025년 10월 25일(토)
- 코스 : 우면산 무장애길
- 참가자 : 강동식,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건수, 김덕명, 김동훈, 김윤호, 박명익, 박채길, 박태웅, 송병열, 안덕수, 이석훈, 이응규, 정원교, 한만섭, 홍현목(19명) 김상규, 박재진, 박태웅, 이상민, 이태경, 현봉길(식당참석 6명)



10월 등산회 모임

질어져 가는 가을인데 아직도 푸른 잎이 대세인 우면산 무장애 데크길을 걸었다.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김건수가 참가했고 농사일로 바쁜 이상민도 사과, 대추를 앞선해서 등산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공을 세웠다. 19명이 데크길을 걸었고 식당에서 합류한 6명을 더해 총 25명이 참가했다. 선들거리는 가을 바람에 나누어지는 정담을 그 누가 엿들겠는가? 만나면 말들이 많아지는 건 서로가 반가움에 얼굴이 펴지고 잠깐이라도 안부를 물으며 대화가 시작되어 옆에서 끼어들며 길어지는 '썰'이 된다. 식당에서 모처럼 참가한 이상민과 한만섭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말 후 피자를 곁들인 막걸리에 주꾸미, 고등어로 점심을 먹었다. 월초 장모상을 치른 이석훈 사무총장이 점심을 샀다. 이렇게 가을 하루가 즐겁게 지나가고 다음 모임을 약속하며 헤어졌다.

입학 동기들과 걷기 ●●●

-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 장소 : 과천대공원
- 참가자 : 강동식, 고병선, 권영기,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석훈, 조흥기(12명)



과천대공원에서



가을 단풍이 절정인 과천대공원 64입학동기 모임인 '이화열사반' 모임에 경영대에서 12명이 참가하여 노란 은행잎과 붉은 각종 단풍이 어우러진 공원을 걸었다. 각 단과대학 입학 동기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걸었고 쉼터에서 간단한 음료와 막걸리, 과일, 과자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식당으로 갔다. 뉴욕에서 잠시 귀국한 조흥기 동기가 참석해서 뉴욕 체류하는 동기들 소식을 알려주었고 검진으로 입원까지 한 유명식 동기가 회복하여 산행에 나오는 더욱 반가운 일들이 있었다. '이화열사반' 모임은 매월 둘째 화요일 대공원 10시 30분 모임이 학번 동기들의 모임으로 정례화된 것이다. 이날 간단한 걷기 후 점심 또한 한식 뷔페로 맥주, 막걸리, 소주까지 합해진 식사 때는 한층 정겨운 대화들이 오갔다. 대체로 35명 내외로 만나는 얘기능 시초 교양학부 학창 시절때 동기생들로 고려고등학교라 불리던 교양학부가 지나가나니 즐거웠던 시절로 이야기하자면 길어지기 마련인 대화를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11월 백수회 안산 둘레길 모임 ●●●

- 일시 : 2025년 11월 15일(토)
- 코스 : 안산 둘레길
- 참가자 : 권영기, 박명익, 박채길, 안덕수, 유명식,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한만섭(10명)



11월 백수회 안산 모임

하늘은 높고 푸르고 실랑거리는 가을바람 속에 각종 색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단풍이 꽃보다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한만섭이 참가했고 인원도 10명이 되니 모임이 시끌벅적 해졌다. 그늘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분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고 사진 찍은 후 "사진도 잘 찍으시고 얼굴도 예쁘시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일행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리고 왁자지껄 좋아하는 것을 보니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적절했다. 한만섭이 지름길을 택해서 가자고 했으나 완만한 코스로 가자고 양해를 구하고 급경사 길을 피해서 오르내렸다. 그날 식사를 기계유씨 명식이 사고 커피는 등산대장 이경희가 사면서 이용규 토요소집 대장이 각자 개인 발표(?)를 하라고 하니 이야기가 길어지고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헤어지기 전 잉어뺨를 산 지동직 회장과 길거리에서 사진 한 컷 찍고 하루를 마감했다.

11월 백수회 양재동 모임 ●●●

- 일시 : 2025년 11월 22일(토)
- 코스 : 양재 시민의 숲과 청계산역
- 참가자 : 권영기, 박채길,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김덕명) (10명)



11월 백수회 양재동 모임

이따금 가는 고속도로 옆길을 따라 양재 시민의 숲에서 차 한잔하고 다시 청계산역까지 가서 한우 우거지탕을 먹는 코스인데 우연히 길에서 김덕명을 만나 함께 앉아 이야기하다가 보내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노닥거리다 청계산역 한우집에서 막걸리에 한우 우거지탕을 푸짐하게 점심을 먹었는데 전임 등산회장이었던 신준철 회장이 백수회원을 위해 잔치를 벌인 꼴로 점심 대접을 해서 회원 전원이 감사 인사를 건넸다.

64학번 경영대 정기총회 및 송년회 ●●●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 코스 : 양재역 엘타워 5층
- 참가자 : (강동식), 강용민,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건수, (김광수), (김덕명), (김덕환), (김동훈), 김상규, (김용운), 김원태, 김윤호, 김인철, (김장수), (나경찬), (민선용), 박명익, (박재진), (박채길), (박태원), (송병열),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이정구, 이태경, 임성인, (정원교), 정철현, (조흥기), (조재복), (조종래), (지동직), (최양섭), (최종욱), (최훈일), 허경호, (허석도), (홍현묵), (황석희), 박일구, 송철호, 신현봉 ※괄호는 찬조금 납부자 36명, 밑줄 표시는 찬조금 내고 미참가자



정기총회 겸 송년회

기운이 급강하해서 추운 날씨에도 47명이나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룬 정기총회는 역시 고대 경영 64학번 열혈남아들 아닌가?! 현임 박재진 회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말이 있었는데 결국 차기 회장단도 금년의 회장단이 1년 더 맡기로 결정됐다. 예산안에서 특이점은 적극적인 찬조금으로 수입 예상액인 200만 원을 초과해서 375만 원으로 증가하는 통에 넉넉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이런 예로 총회 참석은 못해도 찬조금을 보내준 박일구, 송철호, 미국 체류 중인 신현봉까지 금일봉을 보내준 성의가 빛났다.

소모임 활동 보고에서 등산회 권영기 현 회장이 차기 흥현목 회장을 소개했고 당구회장 이용규, 백수회장 지동직이 경과보고와 현황을 설명했다. 저녁 만찬은 각자에게 써브되는 정식으로 넉넉하게 준비된 포도주와 함께 대부분 만족스런 만찬을 즐겼다. 이어진 식후 행사에서는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조흥기 동기를 소개했으며 오랜만에 참석한 나경찬과 테너 박재진, 최양섭의 노래와 황석희 하모니카 연주는 여전히 동네 처녀들 마음을 흔들어 주는 실력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양강좌는 대한 상공회의소 및 전국 경제인 연합회 기업애로 지원센터 자문위원, 전 기술거래사회회장을 역임한 현재 지케이 티엠 컨설팅 대표이사 김인철 박사이자 동기회 감사가 Technology, Aging and Future에 대해 최근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 후 질의응답까지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 즐거웠던 정기총회 겸 망년회는 기념품으로 준비된 참기름 선물 세트를 한 아름씩 안고 내년을 기약하고 뺨이 빠이를 외치면서 마무리됐다.

2월 백수회 안산 둘레길 모임 ●●●

- 일시 : 2025년 2월 21일(토)
- 코스 : 안산 둘레길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송병열,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11명)



2월 백수회 안산 모임

봄이 가까이 다가왔나? 이날 최고기온 17°C, 최저기온 8°C로 그동안 자주 입었던 두터운 옷이 부담스러웠던 포근한 날씨였다. 안산 자락길에 모처럼 상준파 인원이 11명으로 불어나 지난주 한가했던 모임과는 천양지차였다. 오랜만에 참석한 송병열은 그동안 격조했던 백수회 회귀 기념으로 초콜릿과 밀감을 배낭 가득 담아와서 이바지로 내놓았으며 지난주에는 기계유씨 성준이 연안이씨 용규의 손자 서울대학 합격 축하로 점심을 샀는데 이번 주는 밀양박씨 채길의 손녀의 게이오대학 합격 축하 기념으로 치킨과 굴국밥, 낙지비빔밥에 막걸리를 샀다. 지동직 백수회장은 잉어빵 사는 대신 카페 'Would you like coffee'에서 커피를 살 때 건배사로 雪峰를, 유명식 수요대장이 선창한 아뽤사(아프지 말고, '뽤'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를 함께 외치면서 이른 봄맛이 나들이를 마무리했다.



66 회장 김용년 / 총무 정 발 / 감사 박민규

66학번동기회 신년하례회 ●●●

2026년은 나이 80세(대부분), 입학 60주년이 되는 해다. 66학번동기회에서 지난 2월 23일 월요일에 입학 60주년을 맞아 상대 66학번 39명과 고대 66학번 전체 동기회를 맡고 있는 김정규 총무를 초청(민남규 66학번 전체 동기회 회장은 멕시코 출장 중이라 불참)하여 서초동에 있는 선궁(중국집)에서 상대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상대 김용년 회장의 인사말과 김정규 총무의 격려사 그리고 김진하 시인의 팔순 예찬론까지 나와 참석자 모두를 즐겁게 했다. 팔순 잔치 및 입학 60주년을 기념하여 김용년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타월 2장과 화장품 세트를 증정했다. 점심은 그날따라 최고급 요리로 선정. 참석자들의 입맛을 돋웠으며 요리 선택을 참 잘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김용년 회장이 고급 수정방울 직접 가져왔고, 구본호 동기가 빼갈을 선물하여 참석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서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신년하례회

3월회 (회장: 최문봉) ●●●

- 날짜 : 1월 19일(월)
- 장소 : 영덕집 2층(양재역 2번출구)

김용년 회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이 참석. 신년인사 및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묻고 과거를 추억했다. 2월에 치러진 66전체동기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에 대해서 날짜, 장소 선택 및 선물에 대해 설명했고 그날 참석자들은 모든 것을 회장단에게 맡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은근히 위협(?)을 가했다. 오랜만에 김진하 및 김 열 동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3월회는 2월에는 쉬고(66전체동기회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개최) 3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며 2월모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3월회

虎球회(회장: 신경조, 총무 : 김웅한) ●●●

- 날짜 : 3월 2일(월)
- 장소 : 양재당구장

지난 1월 26일 월요일에 호구회원 11명이 참석하여 신년축하 및 현안 논의를 위해 봉피양 양재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2025년 김창호 우승자가 찬조금으로 상금 전액을 내놓았으며, 그날 식대 중 부족분을 김웅한 총무가 기여 부담하며 모임을 마무리 했다. 3월 2일에는 대체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12명이 참석하여 당구대 3대를 꽉 채웠다. 그날 참석자는 김 열, 신진철, 김창호, 한중희, 신경조, 이병익, 김웅한, 염수열, 이연상, 이상익, 조규용, 정 발이었다. 총무는 2026년 Champion Series를 4월부터 시작하니 3월 10일까지 각 회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지를 했다.



호구회

이수회 (회장 : 남효극) ●●●

- 날짜 : 2월 11일(수)
- 코스 : 동국대 - 남산둘레길 - 목막산방(식당)

지하철 3호선 동국대역에서 만나 남산둘레길을 걷고, 남산둘레길 가운데에 있는 목막산방에서 비빔밥을 주문했다. 2차에는 9명 전원이 참석, 커피는 김용년 회장이 비용을 지불했으며 구본호 동기가 4명을 초청하여 목막산방에서 못 마신 술을 대접했다. 그날 참석자는 구본호, 김용년, 박용혁, 박창덕, 이병익, 정성수, 정순달, 정 발, 남효극 9명이다.



이수회

이금회 (회장 : 이철규) ●●●

- 날짜 : 1월 9일(금)
- 장소 : 전주옛날집(양재역 2번출구)

2월 13일에는 이금회가 열리는 날이었으나 설날이 곧 다가와 2월 모임은 취소했다. 2025년 1년 동안 이금회를 잘 꾸려왔던 이판철 회장이 물러나고 이철규가 새로이 회장을 맡았다. 신년인사 겸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염려하는 모양이 옛날 그대롭다. 그날 참석자는 박삼령, 이철규, 김원율, 조규용, 김장욱, 오익수, 김용년, 박종훈, 한중희, 김웅한, 이연상 11명이다.



이금회

사금회 (회장 : 최문봉) ●●●

- 날짜 : 2월 27일(금)
- 장소 : 춘천 공지천

사금회는 매월 4번째 금요일에 만나며 전철(지하철)이 다니는 곳을 골라 산책을 즐기고 힐링하는 모임이다. 회원은 12명이고, 그때그때 회장이 회원들에게 다음에 갈 장소를 공지한다. 이번 모임은 서울 근교를 산책하는 코스로 정했다. 2월 참석자는 6명이며 전철 타고 춘천 공지천을 지나 출렁다리, 의암호 둘레길을 걸으며 힐링했다. 참석자는 이병익, 박창덕, 염수열, 신경조, 김원율, 최문봉 6명이다.



사금회



73 회장 신준식 / 총무 김순배

당구모임 송년행사 가져 ●●●

지난 12월 3일(수) 당구모임은 연말을 맞아 당구대회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출범한 당구모임(리더 이인철)은 그동안 매월 두 차례, 첫째와 셋째 수요일에 선릉역 근처 J당구클럽에 모여 기량을 닦아왔다. 이번 대회는 73동기회의 신준식 회장이 대회 우승상품과 기념품을 회사해 주어 성사되었다. 모두 8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1부와 2부로 나누어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 결과 1부에서는 김규상 동기가, 2부에서는 김순배 동기가 3전 전승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대회 규칙에 따라 우승자에게는 내년부터 당구수를 1개씩 올리는 벌칙(?)이 부과되었다. 경기 후 신 회장이 대회장에 참석하여 시상을 했는데, 회원들의 당구에 대한 열정과 선전을 치하하면서 앞으로 당구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발전해 나가길 당부했다. 시상식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뒤편이 모임을 가졌다. 신 회장이 집에서 직접 양조한 고품격의 막걸리를 가져와 다같이 건배를 하면서 내년에도 모두 건강을 지키면서 즐거운 당구모임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 참석자(숫자는 3구 점수): 류용일 24, 김규상 22, 이광현 17, 최태수 15, 이인철 14, 나상수 13, 김순배 12, 이필승 12



당구모임 송년행사

스크린골프 모임도 송년행사 가져 ●●●

지난 12월 24일(수) 스크린골프 모임(리더 박종만)도 올해 마지막 모임에서 그동안 닦은 기량을 겨루는 대회를 가졌다. 스크린골프 모임은 지난 4월 출범하여 매월 넷째 수요일에 이수역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져왔다. 이번 행사에는 성탄절 전날 귀한 시간을 내준 6명의 동기가 참석했다. 경기는 안성에 있는 더헤븐CC에서 가졌는데, 비거리 차이를 감안하여 화이트 티(White Tee)와 옐로우 티(Yellow Tee)의 두 팀으로 나누어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를 즐겼다. 버디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OB에는 따뜻한 멀리건을, 그리고 멋진 샷에는 환호성을 보내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동기 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기 결과 우승은 라이프 베스트인 이본파를 기록한 박종만 동기가 차지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신준식 동기회장이 우승상품과 기념품을 마련해 주었는데, 해외여행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회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뒤편이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에는 더 많은 동기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스크린에서 나아가 국내 혹은 해외 골프 여행도 추진해 보기로 했다.

* 참석자(숫자는 오버파): 김순배(7), 이형중(13), 정기행(17), 박종만(0), 이창식(7), 박성목(8)



스크린골프모임 송년행사

신년 하례회 개최 ●●●

새해 1월 21일(수) 오후 6시, 삼성동에 있는 수담한정식에서 동기회의 신년회 모임이 있었다. 올겨울 들어 맞이한 최악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모두 35명의 연로한(?)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모임은 지난해에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고려대 역사 다큐멘터리 2편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 설립을 시



신년 하례회

작으로 일제 치하에서 온갖 역경을 견디며 해방 후 고려대학교의 교명으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각자들이 기여한 발자취를 되새겨 보았다. 그 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 정의, 진리를 지향하는 교육 이념하에서 고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더듬어 보고, 금세기 들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한 더욱 발전한 모교의 모습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모교의 공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여 청계고가,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장시간의 시험주행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워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나 산업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이어지는 상용화로 발전하지 못한데 대해 모두들 크게 아쉬워했다. 그 옛날 정확히 53년 전 추위가 한창인 이맘때 대운동장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자보를 통해 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의 영상을 보고는 당시의 엄청났던 기쁨을 다시 느끼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시청을 마치고 신준식 회장의 인사말로 모임을 시작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에 시도한 당구, 스크린 등의 소모임에 동기들이 적극 참여해 준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해에도 많은 동기들이 참여하여 동기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당부했다. 이어서 김순배 동기의 동기회 기금 운영 상황과 올해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별히 올해는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소모임당 활동비를 일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의 동기회 운영이 가능한 것은 20여 년 전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마련해 둔 동기회 기금 덕분임을 상기하고, 당시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기들을 독려하여 기금 마련에 애써준 한경수 동기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어진 만찬 시간에는 동기들이 각자의 근황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동안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원재, 이형종 동기는 그동안 가볍지 않은 건강 문제를 겪었으나 지금은 크게 회복되어 신년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기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했다. 지난해에 수안보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동부인하여 정착한 정병돈 동기는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고, 부인이 아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숨기지 않아 안타까움을 샀다. 이승대 동기는 부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자신이 하루 세 번 설거지를 도맡아 해 왔는데, 그 결과로 팔뚝에 근육이 엄청나게 붙었다고 자랑하면서 동기들에게 앞으로 헬스장 다니지 말고 자신을 따라해 보도록 권유했다. 김환갑 동기는 늦결혼한 큰아들이 작년에 40대 중반이 다되어 늦게 본 손주 쌍둥이로 인해 행복하다고 하면서, 특히 신 회장의 출산축하금을 '따블'로 받은 연대 출신 아들 부부가 요즘 자신을 더욱 우러러본다며 뿌듯해했다. 유장근 동기는 지난 7년간 부부 동반으로 매년 유럽지역으로 2~3개월의 성지순례 트레킹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통산 1만킬로에 달했다고 하면서 올해도 부인의 지휘하에 3월에 스페인에서 3개월간 1,600킬로의 대장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가 경탄했다.

마지막으로 고대가 낳은 천재적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김형준 동기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다. 김 교우는 영화음악 등으로 잘 알려진 '대니보이', '선라이즈 선셋', 'Speak Softly, Love' 등의 감미로운 곡을 들려주어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해 주었다.

76 회장 장영린 / 총무 김덕만

경영76산우회, 주상절리 트레킹 ●●●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경영76산우회(회장 손봉원) 회원 18명은 새해 첫 공식 행사로 특별한 여정을 함께했다. 이번 산행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이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회원들의 얼굴에는 새해를 여는 설렘과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기쁨이 가득했다. 이번 코스는 드르니매표소를 출발해 순담계곡, 고석정, 승일교, 은하수교와 태봉대교를 지나 고석정국민관광지에 이르는 약 10km 구간이었으며 단순한 트레킹 코스를 넘어, 수십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지질 유산 위를 직접 걸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탄강 지질공원 앞 두루미교 앞에서

탐방로에 들어서자마자 한탄강 협곡의 장대한 풍광이 눈앞에 펼쳐졌다. 병풍처럼 늘어진 현무암 절벽은 자연이 만들어 낸 거대한 조형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오래전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이 서서히 식으며 형성된 주상절리로,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을



연상하게 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얼어붙은 바위, 그리고 계곡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장엄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원시적 자연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조금 더 걸어 도착한 순담계곡은 이름처럼 맑고 깊은 풍경을 품고 있었다.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겨울의 계곡은 한층 고요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차가운 날씨에도 웃음꽃은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어깨를 격려하며 “올해도 건강하게 함께 걷자”라는 덕담을 나누었다. 함께 걷는 길이 있기에 우정도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도착한 고석정은 한탄강 절경을 대표하는 명승지답게 빼어난 풍광을 자랑했다.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와 절벽 위 정자가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동양화를 완성하고 있었다. 예로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이곳의 절경을 노래한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정자에서 내려다본 한탄강 물빛은 유난히 푸르고 깊었다. 겨울 햇살이 절벽을 비추자, 바위 표면의 결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며 자연이 빚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탐방로를 따라 걷는 중 모습을 드러낸 승일교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다리다. 한국전쟁 전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기술로 각각 건설된 이 다리는 구조적 형태 또한 서로 달라, 분단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정이 무르익을 무렵,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은하수교와 태봉대교가 나타났다. 다리 위에서 조망한 한탄강 협곡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층층이 쌓인 암벽, 그리고 멀리 이어지는 산 능선이 어우러져 웅대한 파노라마를 펼쳐 보였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가슴만은 시원하게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번 산행은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질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역사적 장소를 지나며 시간의 깊이를 되새겼다. 무엇보다 같은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준 소중한 동행이었다. 겨울 강바람은 매서웠지만 회원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한탄강의 절벽처럼 굳건한 우정과 굽이치는 강물처럼 이어질 인연을 떠올리며, 우리는 2026년 새해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웅장한 자연과 함께한 이번 여정의 웃음과 감동이 앞으로 산우회가 걸어갈 모든 길 위에도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2025 Startup Express Winter Season 참석 후기 ●●●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 장소 : LG POSCO 경영관 432호 구두회 강의실

경영79장학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학생창업경진대회가 있었다. 황준호원장의 인사말과 경영79대표 이상현회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시작된 행사는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를 하며 대회장의 열기가 넘쳐났다. 이상현 회장은 “현재히 부족한 유니콘 기업의 발굴과 성장이 고대경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여 국민과 국가, 세계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환영사를 전했다.

AI 시대에 걸맞게 AI를 이용하거나 응용한 프로젝트가 대세를 이루었는데 In&Out-bound 여행시 필요한 역사·문화·교통 등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프로젝트, 석유화학기업의 화공 설계 자동화 솔루션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행사후원자인 일진글로벌과 동화기업에서 파견한 분석가들의 냉철한 질의도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 행사를 위해 경영79장학위원회에서는 이상현 회장과 오성호 간사가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발표하는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다. 토론후 주어진 평가에서 5개 창업가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대회는 막을 내렸다. 경영79동기회상으로 세 팀, 일진창업가상으로 한 팀, 승명호앙트프러너십상으로 한 팀이 수상했다.



학생창업경진대회 시상

79친구당 연말결산 당구대회(회장: 이성훈, 총무: 서유창) ●●●

- 일시 : 2025년 12월 28일(일)
- 장소 : 여의도 CV클럽

2025년도 월별대회, 반기 결산대회, 연말 결산대회로 이루어진 79경영 친구당의 대회가 이날 이루어졌다. 팀을 나누어 본선에 진출한 8명이 8강전을 겨루어 4강으로 압축했다. 4강에 진출한 이성훈, 허만길, 서종산, 이종훈은 준결승전을 진행했고, 결국 결승전에 도달한 이종훈과 서종산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많은 동기들은 경기 진행에 관심을 보이며 오늘 하이런 7점에 오른 두 선수의 기량에 감탄했다. 경기 결과 로우 핸디의 이종훈이 제한 시간(70분)에 앞서며 우승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들(초크, 그립, 장갑, 지갑, 벨트, 로션, 골프공, 도코브레드빵)이 함께 제공됐다. (우승-이종훈/준우승-서종산/3위-허만길/하이런(7점)상-서종산/회장 하이런(5점)상-서종산, 이승훈, 이종훈, 장덕윤)



연말결산 당구대회

KUCC79 1월 모임 ●●●

-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경영79의 문화모임(KUCC79)이 2026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25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즌2를 열었다. 서울역사박물관 내에서 조선의 한양, 개화기의 경성, 일제강점기 경성, 근대 및 현재의 서울, 서울전경 모형(1/1,500) 등을 관람하면서 역사의 관점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과거에 이어 현재를 조망하는 시간으로 채웠다. 조선건국과 더불어 9개의 후보지 가운데서 궁궐터로 자리 잡았던 서울!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구성됐던 한양도성. 임진왜란때 파괴된 경복궁을 200년간 방치하며 경희궁으로 사용하다가 대원군때에서야 복원하기 시작했던 경복궁.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파괴되고 망가졌던 궁궐들이 현대에서 목함으로 일부 복원됐지만 아직도 원상태로의 복원은 요원한 경희궁. 과거와 근대, 현대를 잇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거듭한 끝에 현재 서울의 모습으로 된 모형의 서울전도를 관람했다. 박물관 밖으로 나와 경희궁을 들어가면서는 일제가 망가뜨려 경성중학을 만들면서 궁궐은 반으로 줄었지만, 최근들어 발굴하며 승정전과 자정전, 태령전을 복원했다. 하지만 서궐도에 있는 궁궐의 모습을 복원하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였다.

정동길로 나와 유명한 노포 '정동국시'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모듬전과 수육, 두부와 칼국수를 나누며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시즌2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상현 총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여 금일봉을 전달하며 격려했고, 진용주 회장이 문화해설을 자처하며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내라서 ZOOM과 이어폰을 이용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경희궁을 거닐며

79친구당 동기회장배 왕중왕전 ●●●

- 일시 : 2026년 1월 11일(일)
- 장소 : 여의도 CV클럽

79친구당에서는 2025년도 월대회 우승자 12명이 모여 왕중왕전을 열었다. 3명씩 4개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고, 2명씩 본선에 8명이 올라 추첨



우승한 서종산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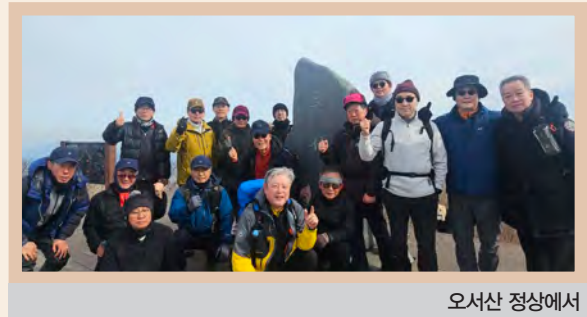
하여 승자가 4강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강에서도 승자가 결승에 진출하여 우열을 가리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상현 동기회장이 시상하며 격려와 축하 인사를 전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 줬고 재미있고 행복한 2026년을 기원했다. (우승-서종산/준우승-장덕윤/3위-허만길)

고경79산우회 오서산 산행 ●●●

·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고경79산우회에서 동기 21명이 모여 28인승 대형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충남 보령의 오서산(烏棲山, 792m)에 갔다. 11시께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하차하여 단체 사진을 찍고서 휴양림까지 도로를 따라 올랐다. 산불경 방기간이라 일부 산행코스가 통제되어 정상을 찍고 원점 회귀하는 산행으로 진행했다.

이정표로는 정상까지 2.4km. 본격적으로 오르다 보니 자그마한 月精寺라는 조계종 계통의 절이 나오고 이어 조그만 폭포도 나타났다.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르니 북서면 음지에는 눈이 녹지 않아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산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성연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 삼거리에서 정상을 향해 움직였다. 날씨가 좀 흐렸지만 농지가 있는 평야와 멀리 보이는 서해가 눈에 아른거렸다. 정상에 도착해서 준비해온 과일과 꽃감, 체리, 홍어를 나누고 막걸리를 대신하여 중국술인 노주노교특곡주를 조금씩 나누어 마셨다. 원래 오서산은 눈과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바람이 덜불어서 준비해 간 비닐헬터 두 동과 난로가 쓸모없어서 다행이기도 했다. 조심스레 하산하다가 월정사에 있는 주막 '오작교'에서 막걸리와 도토리전으로 속을 달랐다. 일하는 아낙네는 월정사의 비구니라 하여 잠시 놀라고 노모(91세)의 건강한 모습에 더욱 놀랐다. 보살님이 타준 달콤한 아메리카노의 맛이 여운으로 남았다. 주차구역까지 내려와 장비를 정리하고 30분 이동, 뒤풀이 장소인 '내포해물촌'에서 신선한 각종 해물과 생선회, 매운탕 등으로 상다리 휘어진 밥상에서 배터지게 먹고 마시고서야 귀경할 수 있었다. 수고한 산악회 집행부(장덕윤 회장, 김명국 총무)의 노력에 감사하고 신년 산행이라고 금일봉의 찬조금으로 격려해 준 이상현 총회장에게 감사드린다.



오서산 정상에서

경영79 신년총회 ●●●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 장소 : 채미가

오후 6시가 되기도 전에 봄비가 시작한 교대역 사거리의 식당. 45명의 동기들로 만석이 됐다. 식사 전 정시에 오성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회의를 열었고, 이상현 회장은 "나날이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우리 동기회의 모습에 감사하며, 멋지고 건강하고 우정이 변치 않는 동기들의 모습으로 병오년도 행복하게 지냈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5년도 결산보고, 감사보고, 경과보고가 있었다. 모두 이의 없는 박수갈채로 보고 사항을 통과시켰다. 특히 79경영장학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임기를 마친 골프회장인 김성태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패를 증정했으며 이어서 지난해 1년간 모임을 위해서 수고해 준 각 모임의 운영진과 감사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했다.

26년도 사업으로 1) 골프회는 월례대회와 정기대회를 실시하고 동·하절기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신년총회

2) 산우회는 4월 중국 황산 트레킹에 이어 가을 영남알프스 산행과 월정산행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3) 당구회는 월례대회에 이어 반기 대회는 속초에서 하며 기량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4) 축구회는 가족 체육대회와 부부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했고 5) 문화회는 시즌2를 맞이하여 영혼을 살찌우는 문화탐방을 매월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6) 당구회에서는 연초에 있었던 총회장배 왕중왕전의 우승자 서종산에게 전체가 보는 가운데 시상식을 실시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했다.

식사와 여흥의 가운데에 이상현 회장은 건배사를 통하여 동기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었으며, 최근 친손자와 외손자를 본 신동익 메가마트 회장이 자축하며 동기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 곧 있을 둘째 아들 결혼식을 앞둔 임 경 동기는 동기들의 참석과 축하를 기다리겠다는 짧은 인사로 대신했다. 무르익는 식사 자리는 삶의 희노애락과 추억을 나누는 가운데 보름 동안의 추위를 날리는 시간이 되었고 안희준의 작품 사진인 단체 인증샷으로 모임을 마감했다.

KUCC 2월 모임 ●●●

-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 장소 : PKM갤러리

KUCC의 2월모임을 위해 PKM갤러리에 18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PKM 갤러리 기획전 《From Hands》에서 젊은 도슨트의 설명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유소성 기법으로 5~6일 동안 가마에서 자연스럽게 구워낸 이인진의 陶器를 소개했다.



이인진의 도기를 감상하며

黑磁 장인 김시영은 흑유도자에 입문하여 40여 년간 고려 흑자를 통해 독창적으로 검정이 아닌 오색찬란한 빛을 1,300℃ 이상의 고온에서 흐드러지는 물성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명진은 건축적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흙 오브제를 도예의 코일링Coiling 기법으로 흙의 물성에 집중해 손으로 밀고 덧붙이는 단계를 거치며, 직선과 곡선, 표면과 볼륨, 조형성과 기능성 간의 균형을 도자로 구현하여 불록 선반 연작과 스톨을 선보였다. 구현모는 흙과 나무의 천연소재와 금속, 아크릴 물감 등의 인공재료를 결합하여 세라믹 작업에 집중하며 흙의 자유로운 형태와 유약의 색, 질감을 실험하여 자연이 작가의 손길을 거쳐 도자로 번역된 〈벽 위 바위 위의 나무〉와 나뭇결의 형상이 바람에 일렁이는 숲 처럼 진동하는 스탠딩 조각 〈숲 섬〉 등 그의 최신작들이 전시장 벽면과 바닥을 입체적으로 활용됐다. 홍영인은 텍스타일과 조각, 퍼포먼스를 주요 매체로 하여, 동물과 인간의 개별 서사를 만들어 선보이는 〈Signalling〉 연작은 코끼리가 위급 상황에서 내는 소리의 파형을 추상적인 직조로 형상화하기도 하고 1970~80년대 한국 섬유공자의 실과 직물을 통해 해체하고 쓴 대형 설치물과 영국 브리스톨 거리의 그래피티를 자수로 옮겨와 전시했다.故 정창섭 화백의 닥종이 회화가 전시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약 30년 동안 물에 불린 닥 반죽을 캔버스 위에서 두 손으로 주무르고 펼친 후, 서서히 응고시키는 특유의 회화를 구현해 왔고, 그 작업은 작가의 몸짓이 물질의 생명력과 동화되는 物我合一의 경지를 내보였다. 특히 그의 〈묵고Meditation〉 연작은 회화의 평면성을 넘어선 촉각적 오브제로서, 절제된 화면 속에 응축된 정 화백의 미학적 성취를 고요히 드러냈다. 이처럼 《From Hands》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인진과 김시영의 도자에서 시작하여, 건축과 도자 사이를 탐구하는 이명진, 도예와 조소의 경계를 넘나드는 구현모, 텍스타일의 홍영인, 그리고 물아합일의 경지에 오른 정창섭 작가의 회화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전시회였다. 다르면서도 닮아 있는 순수미술과 공예의 작업을 구분 없이 살피는 본 전시는, 보는 것을 넘어 각기 다른 손의 움직임을 느끼는 온기 있는 대화가 되었다.

이어서 별관에서는 백현진의 개인전 〈Seoul Syntax〉가 열리어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장치 페인팅, 드로잉, 비디오 근작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는 평생 서울에 터전을 두고 전시장과 무대, 스크린을 종횡무진해 왔다. 수십 년간 변화해 온 서울처럼 자신도 달라지고 있음을 긍정하며, 이 출품작들은 그러한 행위의 시각적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전시의 페인팅은 제목 〈겨울〉, 〈봄〉, 〈초여름〉과 같이 계절의 풍경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난제〉를 만나 〈갈팡질팡〉하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작가의 분방한 보법을 암시하는 듯했다.



다음 목적지는 아트선재센터였는데 리뉴얼 관계로 문을 열지 않아 지나쳐서 정독도서관 옆의 서울교육박물관에 도착했다. 삼국시대의 교육환경에서 우리의 60년 전의 교실 체험까지 아우르며 초년 시절의 학교생활의 추억을 소환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가회동성당. 비와 김태희의 결혼식으로 이름을 올린 이곳은 한국천주교 최초의 신부 주문모 신부가 1795년 예수부활대축일에 한국에서 거행된 첫 미사 봉헌을 기념하는 성당이다. 의친왕과 왕비 등 황족이 세례를 받은 성당이기도 하다.

문화모임의 일정을 마치고 근처의 맛집 '북촌도담'에서 예약된 깔끔한 음식과 막걸리로 배고픔을 달래면서 영혼을 살찌웠다. 진용주 회장은 "자아성찰과 함께 마음 내려놓기를 통하여 주위를 보살피고 배려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건배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식대를 전액 후원한 김정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80 회장 유광후 / 총무 하만우

정기총회 ●●●

- 2026년 2월 11일(수)
- 장소 : 백세주마을 삼성점



유광후 회장



정기총회

2월 11일에 정기총회를 가졌다. 대부분 구정 이후에 개최하는데 올해는 송파구청장에 입후보한 신임 유광후 동기회장의 선거 사무실 개소 등을 고려해서 조금 앞당겼다. 감사 시즌이라 바쁜 회계사 동기들이 일부 빠지면서 18명이 참석했다.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발가락 골절, 독감 등으로 빠진 동기도 있어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나이가 되었다는 점을 실감했다.

인원이 적어 소박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2년간 동기회를 이끌어 준 권현준 회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새로이 회장을 맡게 된 유광후 동기가 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는 시간도 가졌다. 송파구청장에 출마한 유광후 회장은 7월 1일 취임식에 참석하러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만우 총무가 2년을 더 맡기로 했고, 끼리끼리 정담을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9시가 넘어 헤어졌다. 경영80은 졸업 후 40년이 지났지만 220여 명 가운데 160명이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봄여행과 가을 문화행사에는 많은 동기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호산회 소식 ●●●

- 2025년 11월 15일(토) 수락산

오늘 산행지는 수락산으로 가을 단풍이 좋아 인기가 많다고 한다. 노원구, 의정부, 남양주에 걸쳐있어 다양한 코스로 등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불암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수락산유원지에서 내려 내원암, 수락산장, 주봉, 갈딱고개, 벽운계곡, 수락산역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택했다. 단풍이 좋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단풍이 떨어져서 아쉬웠지만 청명한 가을 날씨에 기온도 적당하여 등산하기에 최고의 날씨였다.

내원암에서 잠시 쉬며 위압적으로 크고 경사가 심한 바위를 보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숨을 골랐다. 움직일 때는 땀이 나서 덥고, 쉴 때는 땀이



수락산 정상 주봉에서

식으며 추위 옷을 벗었다 입었다하며 체온 관리를 했다. 계속되는 오르막으로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번갈아 오르며 함께 하는 동기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로 걷다 보니 수락산장이 나와 간단하게 중풍을 했다. 다시 정상을 향해 오르는데, 경사가 더 심해지더니 막바지 나무데크 계단에서는 무척 힘이 들었다. 정상 주봉에 도착하니 기념석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순서를 기다려 단체 사진을 찍고 인근 바위에서 아래를 보니 마음이 넓어졌다. 철모바위를 지나 깔딱고개를 내려가는데 경사가 심해 힘들었다. 깔딱고개를 지나 수락산역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경사도 있고, 작은 바위를 하나하나 밟고 내려오는 것이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았다. 뒤풀이는 '마린보이 코다리짬'에서 코다리짬을 먹었다. 강황돌솥밥은 노란 색깔을 띄며 예술적으로 맛있었다. 유광후가 허리가 안 좋아 산행은 못했지만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고맙다. 2차는 서 정 고문님이 소개한 '리얼빈스 커피'에서 음료와 쿠키를 먹으며 어여쁜 여주인의 친절한 응대를 받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했다. 동기들! 다음 달에 아차산에서 봅시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2025년 12월 13일(토) 아차산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산행은 아차산으로 7호선 사가정역에서 집결했다. 조선의 문신 서거정의 호인 사가정(四佳亭)에서 이름을 딴 정자가 있는 곳이다. 동기 15명과 초대 손님 9명 총 24명이 모여 권현준 동기회장이 준비해 온 떡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비가 와서 각자 우산을 쓰고 열을 지어 산행길에 올랐다. 비는 계속 오는데 비를 피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적당한 공터에서 중풍을 했다. 따뜻한 커피와 빵, 떡 등을 우산으로 비를 가리며 나누어 먹었다. 열을 지어 시루봉에 있는 촬영 명소인 참나무, 일명 '왕따나무'에 도착했다. 화려한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자체가 카메라 배경으로 담기에 그림 같은 분위기여서 이현우 감독 지휘 아래 다양한 개인 사진, 단체 사진을 찍었다. 아차산역으로 하산해서 뒤풀이 식당으로 갔다. 족발과 보쌈에 막국수, 칼국수 그리고 막걸리, 소주 등 산에서 흘린 땀, 솔로 보충하는 분위기였다. 뒤풀이에 창우, 광후, 진형 그리고 김 건이 합류하여 송년 모임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해 흥겨운 음악으로 각자의 장기를 선보였다. 마지막 곡 '만남'을 다 같이 합창한 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아차산 왕따나무 아래에서

현 동기회장과 차기 동기회장 두 분의 왕림으로 더 화려한 송년 산행이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총 19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점점 발전하는 호산회에 만들어 주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2026년 1월 17일(토) 안산둘레길

병오년 호산회 첫 산행지는 서대문구 안산이다. 임규화가 결혼식 참석으로, 정규언 고문은 편입 시험 감독 차출(?)로, 그리고 한종원이 감기로 못 온다고 하여 총 14명의 동기들이 산행을 같이했다.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만나 서대문형무소 옆을 지나 잘 조성해 놓은 데크길을 따라 산행을 시작했다. 삼삼오오 이런저런 주제로 대화했는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재미를 본 동기들이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별 재미 못 본 친구들은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했다. 요즘 핫한 장소라는 홍제폭포에 들렀다. 폭포 앞 고가도로 밑에 테이블과 의자로 쉴 공간을 마련해 놓으니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다. 추운 날씨에 패딩도 없이 얇은 옷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이 몹



홍제폭포 앞에서



시 추위 보였다. 그래도 폭포에 매달린 커다란 얼음은 그들이 평소 볼 수 없는 풍경이기에 즐겁게 사진을 찍어댔다. 폭포를 바라보며 테이블에 앉아 중풍을 했다. 제각각 준비한 떡, 김밥, 과일, 커피를 나눠 먹고 다시 산에 오르자는 팀과 그냥 홍제천을 건다가 뒤풀이 식당으로 가자는 팀이 나뉘어 산행팀은 최승석 고문, 산책팀은 서 정 고문이 리드하기로 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울창한 모습으로 반기고 봉수대로 향하는 경사진 오르막길을 올라 탁 트인 봉수대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맑은 편으로 인왕산의 모습이 보였다. 산책팀이 뒤풀이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 잡았다고 연락했고 산행팀은 봉수대에서 출발하여 하산, 대신고 뒤편의 돼지갈비 전문 식당으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산책팀이 구워놓은 돼지갈비 한 점을 먹으니 산행의 피로가 확 가셨다. 돼지갈비에 막걸리와 소주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뒤풀이에 참석하기로 한 김 건 동기가 도착했다. 늦게라도 동기들을 보기 위해 참석해 준 것이 참 고마웠다. 식사 후 일제시대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라는 '옥바'라는 찻집에서 대추차와 쌍화차를 마신 후 헤어졌다.

새해 새 출발을 함께해 준 동기들, 그리고 오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 참석 못 한 동기들 모두 고맙다. 올 한해 도약하는 적토마의 기운으로 힘찬 한 해 되기를 바라며 아브라카다브라!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2026년 2월 21일(토) 인왕산

오늘 산행지는 인왕산으로 17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자주 참석하던 몇 동기들이 불참했음에도 이 정도면 조만간 20명이 훌쩍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날씨는 온화한 편으로 언제 그렇게 추웠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왕산 호랑이를 만나러 고대 호랑이들이 산을 올랐다. 서대문형무소 옆을 지나 하늘다리로 무악재를 가로질러 인왕산으로 접어들니 날씨가 포근해서인지 마주 오는 등산객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등산로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기다렸다가 올라가기를 반복해야 했다.

해골바위를 지나 성벽길로 접어들어 갈딱고개를 지나니 바로 정상이 보였다. 인왕산 정상석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 서 있었는데, 순서를 기다려 17명 전체가 정상석 위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었다.

바로 옆 공터에 자리를 잡고 중풍을 했다. 준비해 온 음식이 많아 다 못 먹고 남겨 갈 정도로 음식이 넘쳤다. 정상에서 바라본 기차바위는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만큼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어릴 적 올랐던 코스는 지금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듯 했다. 2시에 뒤풀이 식당을 예약했기 때문에 서둘러 하산길에 올랐다.

수성동계곡으로 내려와 서촌으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많았다. 서촌에 위치한 쭈떡식당에 우리 일행만을 위한 오붓한 자리에서 주꾸미찜, 주꾸미데침, 파전 그리고 주당들은 소주, 막걸리로 분위기를 돋웠다. 김 건 동기가 뒤풀이에 합류했다. 산행은 같이 못 해도 항상 와주는 그 마음이 고맙다. 식사 후 인근의 LP 카페로 옮겨 차와 맥주를 마시며 서 정 고문이 DJ에게 신청한 추억의 노래들을 함께 들으며 따스한 오후 햇살을 만끽했다.

많은 동기들이 참석해 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참석한 진형이, 재호가 반가웠다. 호산회 산행코스가 그리 힘든 코스는 아니지만 평소에 하체 운동을 꾸준히 안하면 몸이 힘들 것이므로 평소에도 꾸준히 계단 오르기, 걷기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동기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인왕산에서

골프회 소식 ●●●

· 2025년 11월 4일(화) 골프회 납회

전날 갑작스러운 추위로 조금 염려했으나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 화창한 가을 날씨를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라운드에 돌입했다. 첫 조 소위 메이저리그를 필두로 실력이 엇비슷한 선수들로 조를 구성해 나름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다. 끝날 무렵 살짝 추위가 온 듯도 하지만 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골프회 납회

저녁 시간에 이현우 동기가 추천한 고급 식사를 선택해 공심채 볶음(?), 흑염소 전골, 된장찌개 등 듣기만 해도 보양이 되는 식사를 했다. 골프회장을 역임한 정창식 교우에 대한 묵념으로 수고에 대한 고마움과 평안한 안식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2년 동안 모두 참석한 윤원종, 신창윤 동기에 대한 간단한 개근상을 수여하고 각 조 성적을 발표하며 상품을 시상했다. 1등부터 차례로 타이틀리스트 공 한 박스, 정관장 세트, 캔달 잭슨 와인, 즉석 도정한 쌀 한 포대 등 4가지 선물 중 한 개를 선택해 상품으로 수여했다. 1조는 이봉기, 이선용 동타, 2조는 변대현, 3조는 이현우, 4조는 심성수 동기가 1등을 했다. 참석한 전원에게 자외선 차단 소형 양산이 기념품으로 같이 제공되었다. 김현우 회장의 2년 임기가 끝났고 다음 임원진에서도 골프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수회 ●●●

일수회는 13년째 운영되는 동기 소모임이다. 핵심 참석자들은 일부 바뀌었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80 소모임이다. 1월 5일에 떡국 맛집으로 유명한 '새봄'에서 떡국으로 올해 모임을 시작했고 2월 4일에는 '오공일' 명동점에서, 3월 4일은 '무교주가 제일제면소'에서 환담과 막걸리를 겸한 맛있는 점심을 같이 했다. 본래 사진을 찍지는 않는데 10명 이상이면 동기회에서 지원해 주는 10만 원을 받기 위한 증거로 1월 모임에는 사진을 찍었다. 당초 10명 예약인데 한 명이 급한 사정으로 빠지면서 9명이 모여 떡국으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동기회장이 10명으로 인정해줘서 지원을 받았다.



일수회

80학번 동기회는 소모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성북동 모임도 시도했고 여의도 모임 재개와 강남 모임 신설도 추진했다. 하행민 전 총무가 일산 화사회 모임도 추진했는데 한 번 모임으로 끝났다. 강남 수상회는 이미 해체되었고 이제 일수회와 분당 화사회만 남았다. 1월 모임에서 임규화 동기가 당구 모임을 제안했다. 동기들 가운데 당구 고수들도 많으니 매달 하루 정도 날을 정해 당구 치고 점심, 또는 점심 먹고 당구 한 게임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당구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유광후 동기 출판기념회 ●●●

2월 5일(목)에는 잠실 교통회관에서 신임 유광후 회장의 자서전 '송파지기 32년'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입후보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동기다. 20여 명의 동기들이 참석해서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유광후 동기의 인생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 중학교까지 촉망받는 농



출판기념회



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농구 명문인 부산 중앙고(영화 '리바운드' 배경 학교)에 스카우트 되었다가 바로 공부로 진로를 바꿔 우등생이 되었으며 고대 경영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다가 늦게 법학의 길을 택해 04학번으로 고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국내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번에 모색하는 변화도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81 회장 송재현 / 사무총장 신동훈

제2회 고전 영화모임(아고라) ●●●

-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6:00
- 장소: DH아트센터 공연장 지하 3층 (광진구 능동로7)
- 참석자 : 고인곤, 김상운, 김용철, 김윤창, 김인석, 김종대, 김종양, 김종학, 김준기, 노명환, 노병수, 민태기, 박대양, 박범재, 박준보, 박진우, 백종일, 변준영, 복진선, 송영섭, 송재현, 우동석, 이상진, 이상표, 이상혁, 이석원, 장 영, 정희찬, 조한홍, 조홍균, 최효성, 허문구, 황승하 (33명)

제1회 고전 영화모임(이하 아고라)날 동기 17명이 모여 영화 '카사블랑카'를 감상했다.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와인을 마시면서 영화감상을 만족하게 진행했으며 오랜만에 동기들을 반갑게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2회 아고라 모임은 33명이 모여 저녁 식사 후 와인과 함께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감상했다. 지난번 모임 후 정기적인 경영 모임(씩수달 두 번째 수요일)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더 많이 참석해서 우정을 나누길 소망한다.

골프모임 ●●●

- 일시: 2026년 2월 22일(일) ~ 24일(화)

동기 12명 3팀이 일본 후쿠오카 3곳의 골프장에서 사흘간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우정을 다졌다. 첫날은 와카야마, 둘째 날은 퀸즈힐, 셋째 날은 센츄리CC에서 라운딩했다. 첫날 저녁은 송재현 경영81동기 회장이 오징어 횡집으로 유명한 식당에서, 둘째 날은 이상돈 고골회 회장이 가이세키와 사시미로 유명한 일식집에서, 셋째 날은 전 경영81동기 회장이었던 송영섭 회장이 우동 정식과 식대 비용을 지불했다. 첫날 저녁 식사 비용을 전액 지불한 송재현 회장이 그 덕에 힘입어 센츄리CC 12번 홀에서 생애 최초 홀인원을 기록하는 쾌거를 맞았다.



후쿠오카에서

경영86동기회 송년회 ●●●

한해를 마무리하는 고경86동기회 송년회를 2025년 12월 11일(목) 서초동 소재 파티하우스 '칸타비노'에서 진행됐다. 이날 송년회는 38명이 참석해 동기회 재정 보고, 25년 결산 및 26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등의 총회도 함께 이루어졌다. 와인이 곁들여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고, 동기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라인댄스의 초청공연이 이루어져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졌다. 26년은 86학번의 입학 40주년이 되는 해로, 가을에 있을 학교초청 방문 행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86동기회 내 경영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최관섭 총무



송년회

고경86 마루회 2026년 산행 ●●●

고경86 마루회 2026년 첫 산행이 1월 10일(토)에 진행됐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20여 명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이번 산행은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 안양예술공원에서 시작하여 서울대 수목원을 도는 관악산 코스로, 처음 타는 코스이지만 경치도 좋았고 차가운 산 공기를 맞으며 땀도 흘리는 산행으로 호응이 좋았다. 산행 후 식당에서 백숙에 막걸리로 산행의 피로를 한방에 날릴 수 있었다. 3월 산행은 3월 7일(토)에 현충원과 서달산을 도는 코스로,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충원과 한강을 조망하는 멋진 뷰를 감상하면서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마루회 신년 산행

신임 회장 선출 ●●●

경영대학 80년대 학번(80~89학번) 모임인 809 모임을 2년간 이끌어가게 될 신임 회장으로 박창수(경영85)가 선출되었다. 809모임은 2010년에 발족되어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치는 리더들의 모임으로서 13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편 박창수 신임 회장은 85학번 동기회장으로서 지난해 입학 40주년 동기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향후 809모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영대학 교우회에도 큰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창수 809회장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KUBS Ladies 재학생 집행부 Blossom, 첫 OB 모임 성료 ●●●

KUBS Ladies 재학생 집행부 Blossom의 첫 OB 모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85학번 김재우 교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그릴데미그라스'(서울 충무로)에서 열렸으며, 전 싱가포르 교우회 회장이자 KUBS Ladies 초대 회장인 이충진(81학번) 교우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13학번부터 21학번까지 다양한 기수의 교우들이 참석해 기수 간 교류의 폭을 넓혔다. CPA 등 진로 선택을 앞두고 고민 중인 교우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인 10학번대 교우들의 경험과 조언이 공유되며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번 자리에서는 특히 이미 사회에서 성과를 이룬 교우들이 직접 행사 후원품을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KUBS Ladies 재학생 집행부 Blossom, 첫 OB 모임

선배 교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원에 현장은 한층 활기를 띠었고 후배 교우들 역시 자연스럽게 자극과 동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KUBS Ladies는 대다수의 경영대 학생이 남성이었던 시절, 여성 학우·교우들의 사회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후배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이충진 교우가 주도해 2012년 창설한 단체다. 이후 자체 멘토링 행사 'Good Evening', 연사 초청 강연 'Dream Concer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여성 학우·교우 간 연대와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OB 계더링을 계기로 KUBS Ladies는 재학생과 졸업생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기수와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후원자 - 후원품 명단]
- 이충진(81) (주)알고비탈코리아 대표 - 바디로션 20개
 - 양지현(13) (주)뷰에뉴보(비브비브) CEO - 비브비브 브라탑 20개
 - 김선경(14) 더파운더즈(아누아) 북미사업본부 마케팅팀 시니어 매니저 - 아누아 글로우 커버베이스 20개
 - 한송희(14) 에프앤엘코퍼레이션(플라이트 & 리덴스) CEO - 라이블링 애플썩 클렌즈 20개
 - 사라 아즈하리(16) 네오심플릭스(닥터 리쥬올) Global B2B 팀 매니저 - 닥터 리쥬올 PDRN 크림 외 2종 20개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al@kubsal.or.kr



“아듀(adieu) 경영대학!”

박종원·배길수 교수 정년퇴임식 개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박종원 교수와 배길수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열고, 오랜 시간 학교와 학문 공동체를 지켜온 두 교수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십 년간 강의와 연구,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두 교수를 향해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은 깊은 감사와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

이날 퇴임식은 나현승 교무부학장의 개회로 시작됐다. 이어 마케팅, 회계 전공 주임교수인 윤성아 교수와 유지송 교수가 퇴임 교원의 주요 약력을 소개하며, 두 교수가 경영대학에서 쌓아 온 시간의 무게를 되짚었다. 김연수 학장의 퇴임식사에 이어 감사패와 금메달, 꽃다발 등이 전달되며 두 교수의 오랜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이어졌다.

행사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두 교수의 퇴임사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어조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지만, 말의 끝은 모두 감사에 닿아 있었다.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던 동료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제자들,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퇴임사 곳곳에 배어 있었다.

박종원 교수는 지난 시간을 “큰 영광이자 행운”으로 돌아보며, 동료와 제자들과 함께한 연구와 교육의 순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다. 현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말에는, 학문에 대한 한결같은 태도가 담겨 있었다.

배길수 교수는 담담한 어조로 지난 30년을 회고하며, 본업에서 가치를 찾는 삶과 인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강의실에서 시간이 유난히 더디게 흐르던 어느 순간 비로소 떠날 때가 되었음을 자각했다는 고백은,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이만이 전할 수 있는 진솔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퇴임사 이후에는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됐고, 이어진 만찬과 답사에서는 두 교수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인사가 오갔다. 폐회 후에는 안영일 홀 복도에서 환송의 시간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아쉬움과 축하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두 교수를 배웅했다.

한 세대가 자리를 지키며 쌓아 올린 시간은 학교의 역사로 남는다. 이날의 퇴임식은 두 교수가 걸어온 학문적 여정과 교육적 헌신을 기리는 자리이자,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하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오랜 시간 학교와 함께해 온 두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뜻깊은 성취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박종원 교수

우선,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임사를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려대학교에서 한 평생 근무한 것이 정말 영광이고 행운이다”라고 말씀하신 한 선배 교수님의 퇴임사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2년, 만 31세의 나이에 경영대학에 부임해 33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서 원 없이 연구했습니다. 하고 싶은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석탑강의상을 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많은 박사 제자들을 배출했고, 여러 보직과 역할을 통해 경영대학의 발전에 기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교수님들과 교류하며 동료애를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 개인의 능력 덕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라는 훌륭한 터전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이곳에서 퇴임하게 된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영광이자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저를 이끌어주시고 아껴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많은 선배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몇 해 전 돌아가신 저의 은사고 김동기 교수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남상구 전 학장님과 장하성 전 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갔던 마케팅

분야의 동료 교수님들, 주임교수 윤성아 교수님을 비롯한 마케팅 분야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동료로 함께 일하며 서로 교류하고 동료애를 나누었던 많은 교수님들, 특히 PJP의 박광태 교수님, 반골 4인방, 와골 4인방, BGS 밴드 7인방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제게 소중한 기억이고, 덕분에 늘 행복했습니다.

아울러 학문으로 인연을 맺고 연구에 인생을 건 사랑하는 제자들, 특히 B.E.S.T 모임 멤버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앙대학교 이진용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대학 교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30년간 매주 금요일 거의 한번도 빠짐없이 제 연구실 Weekly BEST Seminar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연구를 논의하고,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B.E.S.T 모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SK 논문 두 편을 이교수님과 함께 쓰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의 인생 여정을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 준 영원한 동반자 아내 서영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몇 년 전 뉴질랜드로 가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위를 받은 후 그곳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늘 마음으로 한결같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제자들과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 주제를 논의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연구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이론 모형과 연구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고, 때로는 살린 실험보다 버린 실험이 더 많을 만큼 많은 실험 연구를 진행하면서 봉착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소설 쓰기에 대해 말했듯이, 연구 또한 시작과 동시에 길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완성에 이르렀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를 떠나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넘칩니다. 연구 능력의 한계를 70세라고 본다면, 제게는 앞으로 약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재 파이프라인에 있는 연구들과 새롭게 진행 중인 연구들을 모두 완성하여, 적어도 서너 편의 SK 논문을 게재해보고 싶습니다. 더없이 감



사하계도, 이 여정을 곧 외국의 한 대학에서 제 아내와 동료 교수로 함께 재직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사랑하는 동료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와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배상



배길수 교수

이렇게 참석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보낸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교수에게, 또 학교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좋은 일과 그리 좋지 않은 일이 제게도 예외 없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셨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학교를 떠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에게는 보스가 없습니다. 물론 학장이 계시지만 이 분이 우리의 업무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잘하고 못하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본업이 강의와 연구인데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후회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면 언젠가 이 일이 끝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있기는 했지만, 닥치지 않은 일에 계획이 서겠습니까? 그러니 당분간 마무리 하지 못한 몇 편의 논문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 교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포함해 달라고 해 생각을 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고 굳이 말을 하자면 “본업에서 가치를 찾으라”는 선배가 해주신 조언이 생각납니다. 본업이 아닌 다른 일은 아무리 잘해봐야 이류를 벗어나기 어렵고, 여기에서 가치가 나오기 어려워 세상에 공헌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는 대체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너무 당연한 원리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강의실에서 시간이 더디게 가기 시작해 떠날 때가 가까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있던 시간은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쉽지만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할당된 여정이 끝났다는 것에 가벼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길수 배상



2026년도 제119회 학위수여식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월 25일(수) 오전 10시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1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부 3,885명, 대학원 2,617명 등 총 6,502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AI 시대에 중요해지는 인간 중심의 역량은 고대인의 DNA로 자리잡아 왔다. 그동안 축적해 온 인간과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AI와 인간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Next Intelligence University로서 인류의 미래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그 정신을 이어 나갈 주인공이 졸업생 여러분”이라며 “첫째,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기본은 다양한 선택 앞에서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지식의 반감기는 짧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배우고 기존의 지식을 융합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이 될 것이다. 셋째, 호연지기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할 것”을 졸업생들에게 주문했다.



승명호 교우회장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고대 교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고대 교우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품어라. 우리 선배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유, 정의, 진리 정신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라며 “개인의 성공만을 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공동체를 이끌어라”고 당부했다. 또 승명호 회장은 “37만 교우 네트워크를 믿고 함께 나아가자. 어려울 때 교우 네트워크의 문을 두드려라. 또한 졸업생들은 후배들에게도 든든한 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준영(경영82) 기아 사장이 참석해 졸업생에게 축사를 전했다. 최준영 사장은 “고려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자부심과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수많은 선배와 후배들로 뭉친 고려대학교의 전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 내려갈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라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또 최준영 사장은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중격마’와 ‘역지사지’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경영대학은 ‘제119회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을 인촌기념관에서 별도로 진행했다. 김언수 학장은

“오늘 받는 학위는 완성이 아닌 출발점이다. 졸업을 의미하는 영어 Commencement는 시작이라는 뜻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학습하는 사람이 되라. ‘Learn how to learn’,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특정 지식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이었다. 이 학습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며 “계속적인 배움을 위해 3C(Curiosity, Collaboration, Contribution) 역량을 갖출 것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트위니를 이끌고 있는 천영석(경영00) 대표이사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 압도적인 변화 속에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틈바구니야말로 여러분 같은 젊은 경영학도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할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라. 또한 어떤 가치를 실현할 때 행복인지 행복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라. 이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휩쓸리는 개체가 아닌 파도를 타는 주인공이 되라”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경영대학 학위수여자는 학사 318명, 석사 50명, 박사 10명, 석박사 통합 1명, MBA 294명 총 673명이다.





고려대 경영, 英 THE 평가 '국내 1위'탈환... 세계 57위로 '수직 상승' 1년 만에 50계단 이상 '퀀텀 점프'...산학협력(산업) 지표 99.9점 기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 김언수)이 영국 타임즈 고등 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26 세계 대학 순위' 경영·경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영 교육의 자존심을 지켰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57위를 기록, 전년도(101~125위권) 대비 순위를 무려 50계단 이상 끌어올리는 저력을 발휘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단독 1위다. 이번 순위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다.

고려대의 이번 성적표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용 학문의 지표인 '산업(Industry)' 부문이다. 99.9점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며, 고려대 경영대의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입증했다.

학계 평판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들도 일제히 급상승했다. 교육여건 점수는 59.0점으로 전년 대비 13.3점 올랐고, 연구환경 점수 역시 56.2점으로 전년보다 12.4점 상승했다. 국내외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평판 조사에서 이처럼 점수가 크게 오른 것은 고려대 경영대학의 학술적 위상이 세계 경영학계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THE 외에도 주요 글로벌 평가

기관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2025 QS 학과별 순위에서는 마케팅 분야 세계 28위, 경영학 분야 42위에 오르며 전반적인 학문역량을 인정받았고, 2025 파이낸셜타임스(FT) EMBA 순위에서는 세계 61위를 기록해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0위권을 유지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국내 최초로 전 학위 과정에 대해 국제경영대학 인증인 AACSB를 획득한 이후, 네 차례 연속 재인증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25년에는 '6년 재인증' 승인을 받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언수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이번 결과는 지난 수년간 교육, 연구, 국제 협력 등 전 분야에서 학장단과 교수, 직원, 그리고 무엇보다 교우들의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된 합작품"이라며, "글로벌 선두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은 만큼,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학장은 "경영대의 전략 축인 3C(호기심·협업·사회공헌)와 4Tech(AI·반도체·에너지·로보틱스)를 강화하고, 개교 120주년 기념 'KUBS 120 MARCH'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1월 23일자 경영대 신문

고수가 알려주는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

서명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
저자 박종식(경영79)

출판사 북오션
출판일 2025.11.3

28년 연구한 재야의 미국 주식 고수 나스닥터. 그가 알려주는 미국 주식 투자의 비밀.

이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미국 주식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의 화제가 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이제 거의 90조 원에 달하며, 미국 주식과 관련해 책과 유튜브 등 종목과 타이밍을 추천해주는 콘텐츠가 넘쳐난다.

이 넘쳐나는 콘텐츠 중에서 중심을 잡기란 쉽지 않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할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커버

드콜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높을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좋을지, 관세와 금리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보니 점점 머리만 복잡해진다. 이 복잡한 매듭을 단번에 끊을 제대로 된 투자법은 없는 걸까?

〈미국 주식의 절대법칙〉은 바로 이런 독자들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간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박종식은 '나스닥터'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식 세대 투자자로서 활동하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재야의 고수다. 그가 28년간 연구한 미국 주식시장의 전부를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스케일링 피플

서명 스케일링 피플
저자 클레어 휴스 존슨
번역 이길상(경영95), 고영훈

출판사 세종서적
출판일 2025.10.30.

구글, 스트라이프 전 COO 클레어 휴스 존슨이 쓴 〈스케일링 피플〉이 이길상 교수 외 1명의 번역으로 한국어판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실리콘밸리 두 회사에 재직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접근한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둘째, 적합한 인재의 신속한 채용. 셋째, 건강하고 강력한 팀 구성. 넷째, 피드백과 성과관리의 체계

화로 성장하는 조직이 갖춰야 할 4단계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며 조직이 커질수록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리더가 혼란 없이 조직을 성장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스타트업 창업자,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 경영진, 팀을 맡게 된 리더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스케일링피플

SCALING PEOPLE

미래를 보는 큰 그림

위험한 현장은 드론이 먼저 살피고
잠재된 위험은 시가 먼저 감지하며
사람의 안전은 VR로 준비하는
디지털 트윈이 만든 미래의 공장



데이터로 예측하며
기술로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의 기술 혁신까지

GS칼텍스가 DAX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DAX

GS칼텍스의 디지털 & AI 트랜스포메이션 (DAX, Digital & AI Transformation)은 디지털과 시가 함께 발전하는 관계로 DX와 AX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DAX는 디지털 기반을 넘어 시를 통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혁신의 여정입니다.



세스코 과학으로 관리합니다 글로벌 No.1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

지금까지 세스코 솔루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인 처방, 사후 관리를 통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키워왔으며, 50여 년 축적해 온 'Science'를 바탕으로 전 인류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에, 사람이 마시는 공기이기에,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곳

세스코는 세상 모든 환경위생을 연구하고, 관리를 책임지는 '종합환경위생기업'입니다.

CESCO Science. ON Life



통합해충방제
Integrated Pest
Management Solution



식품안전
Food Safety Solution



시험분석
Testing Service



세균 바이러스케어
Viruscare System



공기질 안심관리
Air Care Solution



향기 컨설팅
Airperfume Solution



수질 안심관리
Water Care Solution



바디케어
Bodycare Solution



환경위생용품
Hygiene Solution

*Anytime
Anywhere*

⋮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